

cover story

나를 나답게 가꾸는 아름다운 수원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나'란 존재를 드러낸다.
오늘의 '나' 숨어 있지 않고 보다 당당하고 정직하다.
나를 똑바로 마주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내가 되어간다.

표지 일러스트 임다운



SUWON CULTURE & ARTS MAGAZINE

인인화락

人人和樂 | 2018 Spring VOL.22



화사했던 꽃잎은 이내 떨어졌지만
따스했던 봄날은 지지 않고 추억으로 피었다.

CONTENTS

목차

2018 — Spring — VOL.22

S

Special Features

나를 나답게 가꾸는 아름다운 수원

06

인트로

나의 신념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Meaning out

08

공간탐색 1

수원의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뜨거운 공간들 「경기상상캠퍼스」
Hot spaces that are creating the cultural
trends in Suwon Spaces for archiving
public arts 「Gyeonggi Imaginary Campus」

20

공간탐색 2

지금 이 순간,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한 소비
오보이편집샵, 행동하는 동물사랑·입양뜰

26

칼럼

필기도구의 역사:시간과 '나'

A

Art&Space

30

공방탐방

향기로움 가득한 일상을 꿈꾸는 곳
꽃집 일년열두달

36

전시프리뷰

수원미술전시관에 찾아온 봄!

40

공연프리뷰

2018 아트리움 위드 유

S

Sightseeing

48

골목산책

봄날의 나른함을 행복한 만찬으로 깨워주는 곳
브런치카페

56

수원유람 1

바쁜 일상 속 심표를 그리는 여유로운 순간들
수원의 힐링 명소

62

수원유람 2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시간
집에서 혼자 놀기!

P

People

64

예술인열전

예술 속,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
전원경 강사

70

안녕하세요 1

낭만의 숲 속의 파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임수택 예술감독

74

안녕하세요 2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축제
김창환 시민프린지추진위원장

S

Story

76

행사소개

즐거움 숲 속의 파티 '2018 수원연극축제'

78

전통레시피

게감정과 장산적, 오이갑장파로 차린 봄의 만찬

82

세상보기

신념을 사는 사람들, '미닝아웃 족*'*의
패션 아이템

84

문화읽기

만족감이라는 이름의 허상, 플라시보 소비

S

SWCF

88

재단사람들

90

재단소식

93

싹틔움소식

95

수원스타그램

96

행복우체통



인인화락은 정조의 '호호부실 인인화락(戶戶富實 人人和樂)'에서 따온 말입니다. '집집마다 부유해지고 사람과 사람들이 화목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위민군주 정조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인인화락'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통권 22호(비매품) 발행 2018년 4월 25일 등록번호 경기 바 50071 등록일 2012년 11월 14일 등록번호 ISSN 2287-7479

발행주기 계간 발행인 박홍식 편집인 황연주 편집기획 기획홍보팀 윤승기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주*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전화 031-290-3600 홈페이지 www.swcf.or.kr

기획·디자인·제작 데이에이치(주) 전화 031-247-5141



계간지 '인인화락'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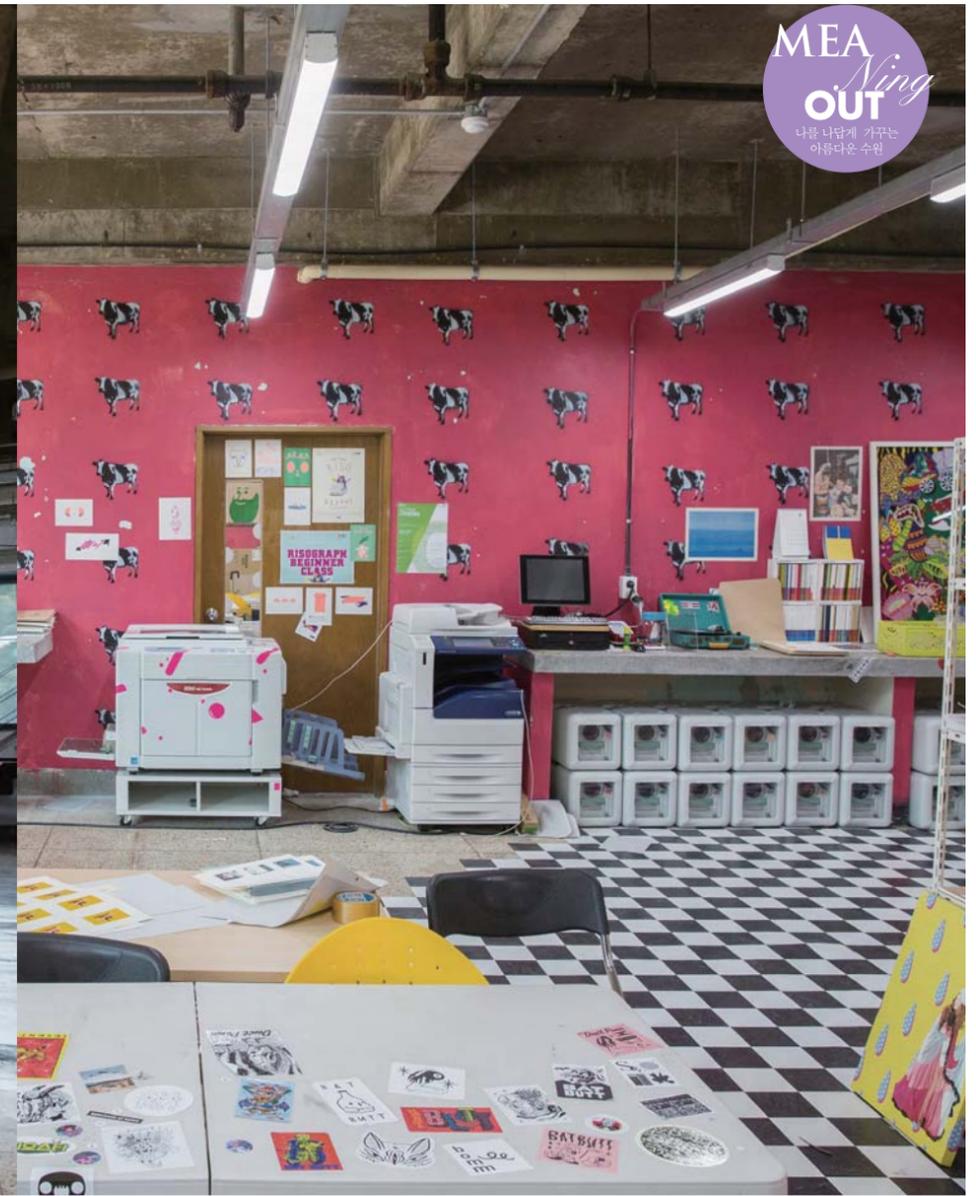
MEANING OUT

나를 나답게 가꾸는 아름다운 수월

나의 신념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가리거나 침묵하고 싶지 않다. 내 취향에 대해, 내 몸에 대해, 시대 정서에 반한 관행에 대해, 정치와 권력에 대해, 불평등에 대해, 부조리에 대해, 가진 자의 갑질에 대해, 공공연한 악에 대해 '이제는 모난 돌'을 자처한다. 정을 맞을 일이 없다. 일부는 불매운동 같은 저항 행동으로 이어지고 타깃은 즉각 응징되기도 한다. 미닝아웃은 신념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뜻의 '커밍아웃(Coming out)'이 결합된 단어다. 남들에게 밝히기 힘들어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자기만의 의미나 취향 또는 정치적·사회적 신념 등을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을 뜻한다. 2000년 초반 '커밍아웃(Coming out)'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참 생소한 단어였다. '벽장 밖으로 나오다(Coming out of the closet)'라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에 한정된 용어였다. 좁은 의미의 커밍아웃은 사회 전체에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만을 가리켰지만, 그 의미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밝힐 때도 커밍아웃을 말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은 바야흐로 '미닝아웃(Meaning out)'의 시대다. 이 용어의 저작권은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에게 있다. 그가 발표한 '2018 트렌드 코리아'에 처음 등장한 한국식 조어다. 취향이나 가치관, 정치·사회적 신념에 '의미'를 두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커밍아웃에서 진화했다고나 할까. 그러나 아무리 개인의 주관이 뚜렷해도 결국 변화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세상은 가만히,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2018년 '미닝아웃' 현상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미닝아웃'에 나서기 전에 자신의 신념이 올바르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정보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전제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글 편집실



MEANing OUT
 나를 다담게 가꾸는 아름다운 수원

수원의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뜨거운 공간들

공공 문화예술 아카이브 공간

오랫동안 방치되고 버려졌던 공간들이 수원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옛 서울대 농대 캠퍼스 부지에는 경기상상캠퍼스가 들어서고, 자연스럽게 생성된 울창한 숲과 자연환경은 경기상상캠퍼스를 문화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공간들은 수원의 문화 부흥과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작가, 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질 좋은 수원의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비밀스런 공간의 모습을 담았다.

글 윤승기 기획홍보팀 사진 경기상상캠퍼스 정리 강일서

Archive space



‘경기상상캠퍼스’

상상과 재미를 입히다

경기상상캠퍼스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문의 031-296-1980
사이트 <http://sscampus.kr>

수원 옛 서울대 상록캠퍼스(농생대 부지)에 경기상상캠퍼스가 들어섰다. 2003년 농과대학이 서울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며 상록캠퍼스는 12년 9개월간 잠들어 있었다. 고스란히 남은 대학 건물과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2014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2016년 6월 드디어 문을 열었다. 리모델링을 거쳐 농원예학관은 ‘경기청년문화창작소’로, 농공학관은 ‘상상공학관’으로 거듭났다.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는 ‘창직’ 실험과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소로 쓰인다. 각종 수공예 공방, 어린이 책 놀이터, 독립출판 서점, 자전거문화살롱 등이 들어섰다. 문화허브 카페, 생활예술공방 및 아트숍, 청년창직 실험랩 등이 있다. 청년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다사리문화기획학교도 오픈했다. 옛 물품을 전시하는 ‘쓸애기 전시장’, 하늘장터, 심터 어울마당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도 쓰인다. 상설 공간 외에도 오픈 페스티벌의 불거리는 풍성했다. 영국의 동화작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테마 전시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분장을 한 행사 진행요원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갖가지 장면을 나누어 맡았다. 그 밖에도 각종 전시와 플라마켓, 거리공연 등 다양한 불거리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경기문화창작소에는 2016년 총 8팀의 청년단체가 시범입주를 시작했다. 독립출판과 제작을 위해 창업한 ‘사만키로미터’ 팀, 자전거를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 활동과 창작활동을 보여준 ‘자전거문화살롱’ 팀 등이다. 현재 오픈한 공간 외에도 2017년 리모델링을 통해 농업공작실, 업사이클링센터 등이 완성되었다. 연말에는 공모를 통해 청년 단체를 입주시키고,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업사이클링 생산물을 만들어 파는 수익 모델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의 창업·창작활동을 위한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청년1981’이라 불리는 경기청년문화창작소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들의 창업·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 및 컨설팅 지원, 지역에서 활동할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국제교류 및 청년네트워크 모임 지원 등 다양한 청년문화 활성화 활동을 진행한다. 이곳은 문화예술이나 융복합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업 및 창작을 하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의 젊은 청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경기청년문화창작소와 같은 공방에 입주하여 계약 기간 동안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경기청년문화창작소는 문화예술이나 융복합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나 창작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모집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경기청년문화창작소에 입주한 단체들은 여러 가지 혜택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목공, 도색, 건조 등 다양한 랩^{LAB}실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작가들의 작업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생각한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표현해 낼 수 있다. 또한 카페를 비롯해 장비(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입주 작가 및 단체에게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곳의 입주 작가 및 단체들을 부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그루버라는 말이다. 그루버^{groover}란 작은 숲 grove, ‘즐거디^{groove}’, ‘er’의 합성어로 ‘숲 속에서 함께 모여 즐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은 상상캠퍼스 숲속 코워킹 스페이스의 멤버들을 통칭하는 아이덴티티다.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와 단체들의 하고 싶었던 일과 도전을 숲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성취하라는 의미에서 그루버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는데 그 이름처럼 수원 문화예술가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한다. 🌲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문의 031-296-1980
사이트 <http://sscampus.kr>

문화예술 아카이브 공간 ●
경기상상캠퍼스 둘러보기 ●

경기상상캠퍼스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문의 031-296-1980
사이트 <http://sscampus.kr>

Archive space



포레포레

숲 속 장터 "포레포레^{for4}"는 경기상상캠퍼스의 울창한 숲 속에서 열리는 북작북작한 시장이다. 상상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의 창작상품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소품을 거래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에는 매월 신나는 놀이프로그램이 열린다. 포레포레에서 쇼핑도 하고 공연도 보고, 먹고, 누워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5월 ~ 9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기 청년 문화 창작 소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들의 창업·창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 및 컨설팅 지원, 지역에 서 활동할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국제교류 및 청년네트워크 모임 지원 등 다양한 청년문화 활성화 활동을 진행한다.
월 ~ 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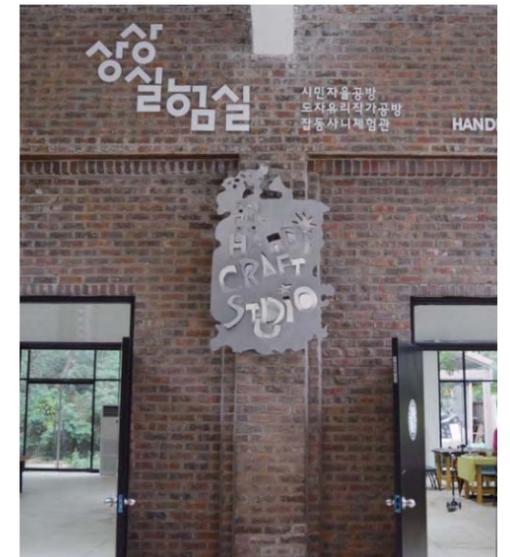
손살이공방

경기생활문화센터 내 위치한 손살이공방은 '손'으로 만드는 재능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생활문화 기반의 수공예팀이 입주해 있다. 생활목공, 그림책, 규방공예, 금속공예(장신구), 천연비누, 자수 등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고, 구매도 가능하다.
월 ~ 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문의 031-296-0540



경기 생활 문화 센터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연령별,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 (강연 및 워크숍, 공방 레지던시 등) 운영, 지역민을 위한 자율학습 공간 및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모두의 놀이터'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월 ~ 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경기 생생 공화국

공예(섬유, 유리, 도자)와 디자인, 인문학, 문학, 예술의 융합을 통한 상상의 실현과, 서울대 농생대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활용하여 재탄생한 공간이다. 참여·협업·교류·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멀티 플랫폼으로서 상생의 문화를 꿈꾸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화 ~ 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월요일, 추석 및 설 연휴 휴무
문의 070-4231-8800

#01



“나무들과 숲으로 이루어져서
휴식할 수 있고, 머리를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점이 가장
좋아요. 특히 문화예술적인 시도를
하거나 창작을 하기에는 여유
있는 공간이라는 점 또한 장점인
것 같아요.”

이기거나 혹은 져야 하는 현실에서 비길 손 없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다

창작그룹 비기자
최선영 대표

문화를 놀이로 삼는 이들이 있다. 다양한 문화를 주변과 공유하며 특유의 자유분방함과 진한 감성을 전파하는 이들. 바로 문화 기획자다. 청춘 Talk, 청춘 Play, 짓거리 투어, 우주보따리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수원의 대표 창작그룹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선영·이재환 작가.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며 알록달록한 문화적 컬러를 수원 이곳저곳에 입히는 중이다.

창작그룹 비기자는 그 이름에서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기거나 혹은 져야 하는 두 가지의 방향성 말고 비길 손 없을까 하는 물음에서 시작한 비기자는 최선영·이재환 작가가 이끌고 있다. 비기자는 경기상상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창작그룹 중 하나다. 최선영 대표는 경기상상캠퍼스의 공간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얘기한다.

“주변 환경이 나무들과 숲으로 이루어져서 휴식할 수 있고, 머리를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그런 점이 가장 좋아요. 특히 문화예술적인 시도를 하거나 창작을 하기에는 여유 있는 공간이라는 점 또한 장점인 것 같아요.”

또한 그녀는 특히 랩^{AB}실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메이킹 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현재 24개 팀 정도가 입주해 있는데 그 팀들이 함께 옆방에 상시로 있다 보니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더 좋은 것 같다고 한다.

“24개의 랩실에는 다양한 팀들이 모여 있어요. 팀별로 하는 장르가 되게 다른데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으니깐 오히려 작업하는데 서로 영향과 영감을 줘서 그런 점들이 더욱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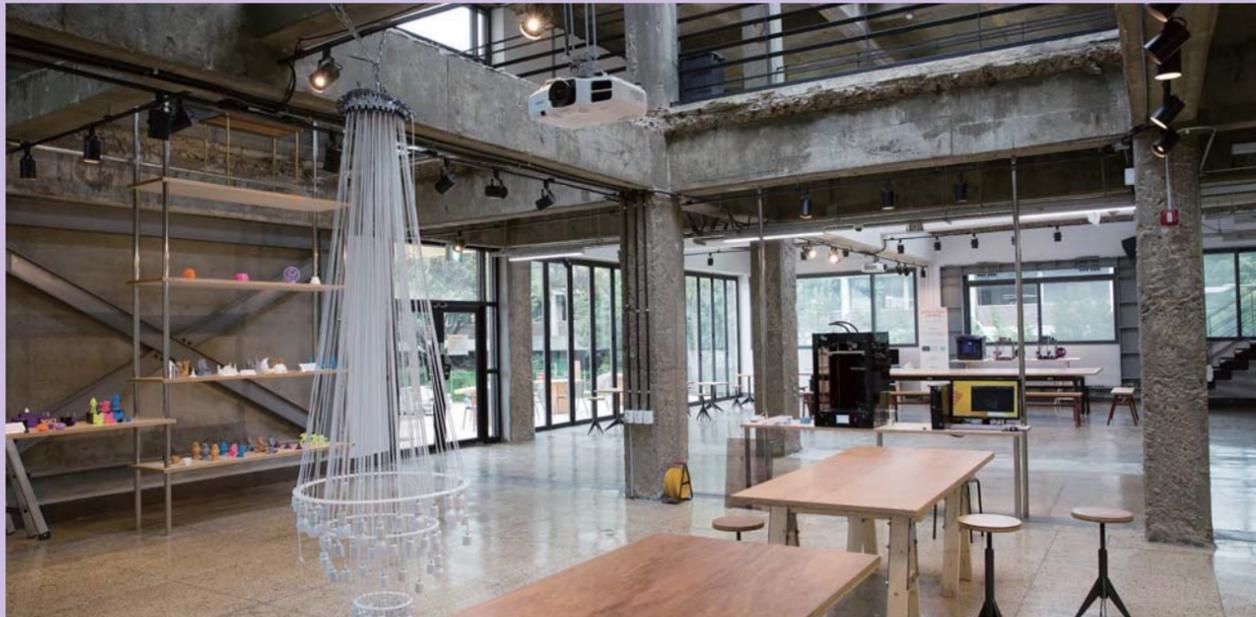
그래서 상상캠퍼스에 들어와서는 다른 입주 청년들과의 협업도 준비하고 있다는 최 대표 비기자의 작업은 예술적인 퍼포먼스나 사회의 비판보다 사실 사회 참여에 가깝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론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도 그것을 자기 문제화하는 것은 별개의 의미라고 한다. 오히려 그렇게 안 되기도 하고, 자기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기획공연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우주보따리라는 공연을 작년에 문화가 있는 날 지원을 받아서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총 4회 진행했어요. 우리가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 장애, 사회문제, 청년문제나 노인문제를 가지고 기획을 한다면 사람들이 자기의 고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언어나 내용들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고민으로 받아들이고 궁금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주보따리라는 공연으로 풀어본 거예요.”

우주보따리는 우주에서 떨어진 보따리에 들어 있던 놀이기구를 나눠가지고 서로에 대한 생각들을 궁금해 하며 게임을 하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비기자는 현실에 대해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닌 비기는 현장을 문화 예술적 방법으로 찾으려고 다양하게 고민한다. 앞으로도 계속 질문하고 시도하며 아트 커뮤니티를 통해 중요한 현장을 만드는 예술가 그룹의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해 본다. 🏠

Hot spaces that are creating the cultural trends in Suwon

Spaces for archiving public arts



Spaces that have been left deserted for a long period are evolving as the new cultural spaces in Suwon. At the land where the Agricultural college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nce stood, Gyeonggi Imaginary Campus has been built. The thick forest and natural environment that have been created naturally make this Imaginary campus as the space of culture and rest in harmony with cultural artworks and the nature. These spaces are the places to support cultural renaissance of Suwon as well as creation of artwork by artists, where the projects invigorating the towns are underway with artists, residents and NGOs. This article reports the feature of the secretive space that is creating the high quality cultural trend in Suwon.

Written by Kang Il-seo, Yoon Seung-ki Photo by Gyeonggi Imaginary Campus

GYEONGGI IMAGINARY CAMPUS, culturing imagination and fun

Into the land where Sangrok Campus (the Agricultural College)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used to stand in Suwon, Gyeonggi Imaginary Campus came in. After the Agricultural college moved to Gwanak campus in 2003, the Sangrok campus has been sleeping for 12 years and 9 months. In order to utilize the building and the land that remain intact, the Gyeonggi Province and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tarted its preparation since 2014. At last, the new campus opened in June 2016.

After remodeling, Agricultural & horticulture building was reborn as Gyeonggi Youth Culture Creation center and the Agricultural Engineering building was reborn as Imaginary Engineering building. These are used as the place to support the creative experiments and activities that create new jobs based on culture and art.

Various handicraft workshop, childrens' book playground, independent publishers' bookstore, bicycle culture salon have moved in here. Cultural hub cafe, living artwork handicraft workshop and art shop and youths' creation experimental laboratory are located here. The Dasara Culture Planning school has also opened to train young cultural planners. This space is also used as the spaces for sharing the culture with residents, such as exhibition center 'Sseulagi' showing old items, Hanul marketplace, resting place Yeoulmadang, etc.

In addition to the fixed facilities and spaces, there were many things to see at the open festival. The exhibition 'Alice in Wonderland' by Lewis Carol who is a British fairytale writer was most favored by children.

The exhibition staffs with make-up were cast in the roles of various scenes appearing in the 'Alice in Wonderland'. Various other interesting events such as various exhibitions, flea market, and street performances caught the eyes of Suwon citizens.

At Gyeonggi Youth Culture Creation center, 8 youth teams in total moved in as a pilot project in 2016. The pilot projects include '40,000 kilometer team which is the startup for independent publishing and production' and 'bicycle culture salon team' that

shows various cultural and creative activities with the bicycle as a medium. In addition to already opened spaces, agricultural craftwork room and upcycling center have been completed by remodeling in 2017. Further plans for the year end include open selection of youth group and presenting the business model where upcycling productions under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re put on sale.

'Youth Culture Creation center' for the business incubation and creative activities of the youth

At the Gyeonggi Youth Culture Creation center, also known as 'Youth 1981', various promotion activities for youth culture are underway, including support of consulting and spaces, training young regional cultural planners and support to international exchange and networking gatherings, to promote youth's business incubation and creative activities based on culture and arts.

This place recruits occupants from the youth aged 39 or younger or organizations which pursue business incubation and creation based on culture & art or fusion and convergence industries. The Gyeonggi Youth Culture Creation center supports the young artists' activity by providing admission to the handicraft workshop to be engaged in artworks in the workshop during a certain





Browsing Gyeonggi Imaginary Campus as the space of cultural and artistic archive

Gyeonggi Imaginary Campus

Address 166 Seodun-ro, Gwonseon-gu, Gyeonggi-do

Inquiries 031-296-1980

Website <http://sscampus.kr>

contract period.

Any youth who seeks business incubation or creation based on culture & art or fusion and convergence industries is eligible for admission to the Gyeonggi Youth Culture Creation center. Therefore, this center is the space where artists in more diverse genres are granted the opportunity for creative activities. Any group moving into the Gyeonggi Youth Culture Creation center is entitled to various benefits, which more than anything else include making reservations for using various LAB rooms for such as carpentry, painting, drying, etc.

These spaces allow the artists to minimize their work hours, and enable them to describe any idea they came up with immediately. Furthermore, artists can use the café as well as equipment (3D printer, laser cutter, etc.) at a low cost. In addition, this space provides further benefits to the artists and organizations as occupants to become the best space for creative activities.

A peculiar terminology is used to describe the artists and the organizations that are occupants of this space. It is 'groover'. Groover is the compound word of 'grove' meaning small forest with 'groove' meaning enjoyment as well as 'er'. This is the identity commonly designating the members of the co-working space in the forest of Imaginary campus, containing the meaning of 'the person who gathers together in the forest and enjoys together'. The name 'groover' came to be used like this, to the effect that the artists and organizations in creative activities shall be allowed to enjoy and achieve their goals and challenges as much as they want in the forest. We cheer them on so that the dreams of the cultural artists in Suwon would come true, like this name suggests.

Gyeonggi Youth Culture Creation Center

This center proceeds with various promotion activities for youth culture, such as support of consulting and spaces, training young regional cultural planners who will cover the regional areas and support to international exchange and youth networking gatherings, to promote youth's business incubation and creation activities based on culture and arts.

Mon~Sat : 10AM-6PM *Sundays and holidays 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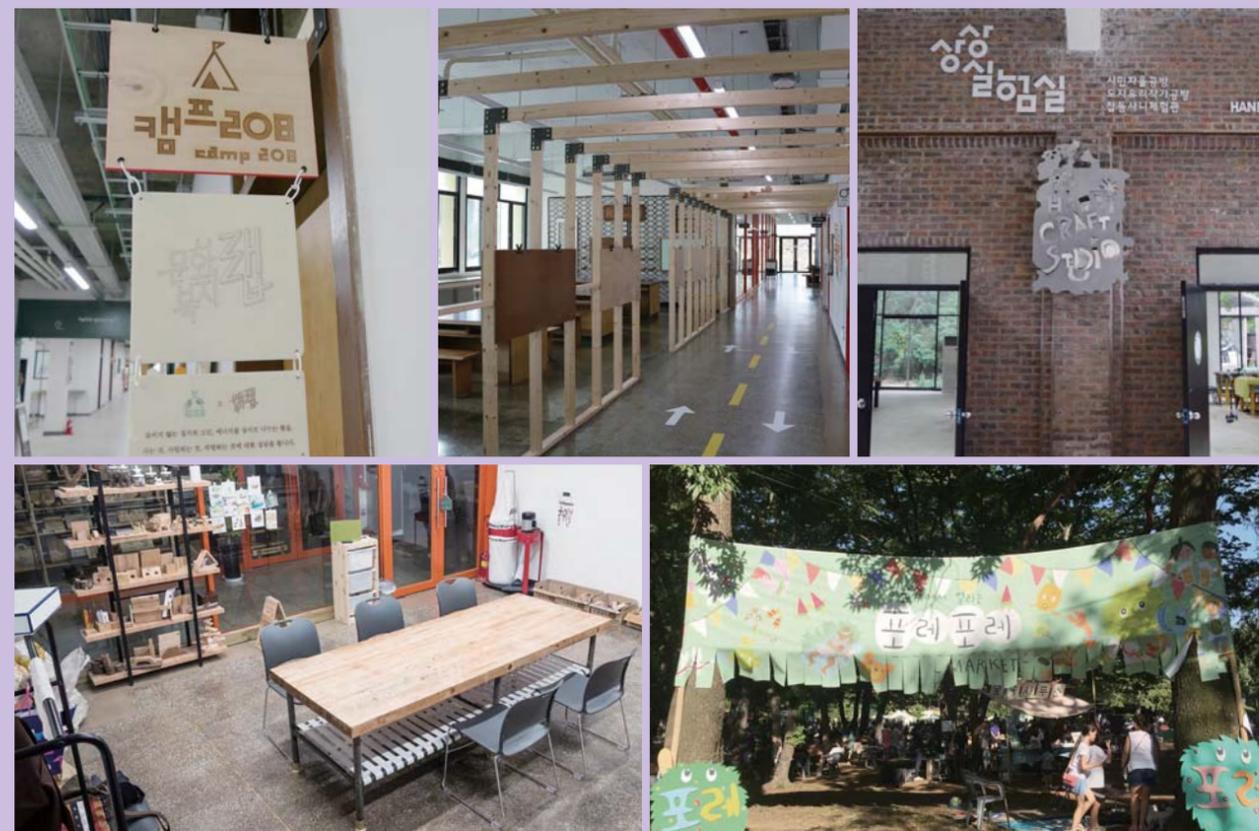
Sonsali handicraft

The Sonsali handicraft workshop located in the Gyeonggi Living Culture Center has been occupied by the handicraft team based on living culture, who seeks to grow together with the area with their talent of making by hand. Visitors can experience making hand-made products such as living carpentry, storybook, metal craft (accessories), natural soap, embroidery, etc., which are on sale as well.

Mon~Sat : 10AM-6PM *Sundays and holidays closed

forêt forêt

The inner forest marketplace, forêt forêt is the crowded marketplace opening in the thick forest in Gyeonggi Imaginary Campus. The products created by the organizations occupying



the Gyeonggi Imaginary Campus as well as living props of local residents can be traded here. In the wide lawn where adults can run and play with their children, fun and exciting programs are held every month. At forêt forêt, visitors can go shopping, watch performances or lie down to have a comfortable rest.

Every last Saturday of each month between May~Sept.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Gyeonggi Living Culture Center

This center operates various programs (lecture and workshop, residency at handicraft workshop etc.) to propagate the living culture to each age group and target group and provides autonomous learning space and cultural leisure space to local residents to realize its value as the 'playground for everyone'.

Mon~Sat : 10AM-6PM *Sundays and holidays closed

Gyeonggi Vivid Republic

This is the recycled space of the previous Agricultural colleg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gricultural Engineering building, dreaming of realizing new imagination through convergence, and the culture of recycling, new birth or coexistence. This is the place reborn using the realization of imagination through convergence of craftwork (textile, glass, porcelain) and design, humanities, literature and arts as well as the spatial and historical feature of the Agricultural colleg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the complex cultural space as the multi-platform operating the programs for participation, cooperation, interchange and exhibitions.

Tues~Sat : 10AM-6PM *Mon, Thanksgiving day and New year's holidays closed (Inquiries: 070-4231-8800)

지금 이 순간,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한 소비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일상의 모습이 달라진다.
취향과 개성, 가치와 신념 그것들이 바로 '나'를 이루는 것이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소비의 패턴이다.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미닝아웃의 시대.
가치 있는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 두 곳을 소개한다.

글 공주영 사진 김성재



"The greatness
of a nation and
its moral progress
can be judged
by the way
its animals are
treated."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 마하트마 간디

소비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어떤 소비가 나를 만족시킬 것인지 잘 들여다보는 것은 행복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닝아웃은 나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표현하면서도 누군가를 돕거나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는 등 공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이기도 하다. '나'에서 시작하지만 '우리'로 퍼지는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 얻는 행복, 이보다 큰 가성비도 또 있을까.

Oh Boy!

Think Twice Before You Buy. Think Again Before You Pay.

사기 전에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오늘 꼭 뭔가를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환경과 동물 복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패션문화잡지인 '오보이!'에서 운영하는 오보이!편집샵에 쓰여 있는 문구다. 잡지 '오보이!'는 독자에게 지면을 통해 말을 건네는 매체인 반면, 편집샵 '오보이!'는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보여주며 말을 건넨다. 이곳 매장에서는 유행을 따라잡느라 쉽게 구입하고 금방 대체되는 제품 대신, 오래 써도 질리지 않는 제품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쉽게 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소비'임을 말한다. 우리가 현명하지 않은 소비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마케팅에 휘둘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따라 사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필요하지도 않은 '대박'과 '완판'의 제품들을 구입했다가 버리곤 하는 반복적인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소비자 개인에게, 그리고 멀리 보면 지구의 미래에게 불편한 소비다. 이것이 '오보이!'편집샵에서 '타임리스(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을 진열하는 이유다. 크게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팔아,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소비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 등 동물복지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주로 '오보이!' 독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곤 하지만, 최근에는 SNS 등에서 알려져 관심을 가지고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 달에 한 두 번은 매장 앞에서 동물보호단체인 생명공감과 유기견 거리입양제를 열기도 한다. 상수역에 내려 도보 3분 거리면 닿을 수 있는 이곳 오보이!샵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1층에는 반려견 용품이 진열되어 있고, 2층에서는 오보이! 잡지와 동물 복지 관련 책, 생활용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최근 상수동에 이어 압구정 도산공원 근처 쿠팡마마켓에 새롭게 오보이! 편집매장 2호점이 열렸다.

오보이! 편집샵
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25-1
주요 품목 잡지, 서적, 생활용품, 잡화, 동물용품
시간 13:00~20:00 (일, 월 휴무)
안내 02-324-9661

Mini Interview



스텔
다나카 에리나

일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우연히 오보이 잡지를 알게 되었어요. 일하고 싶어서 한국 오보이!에 연락을 했고 매거진 디자이너 겸 매장 스텝으로 일한지 일 년 반 정도 지났어요. 오보이!에서 일하면서 환경과 동물에 대해 점점 관심이 많아졌어요. 뭔가 소비를 해야 한다면, 쉽게 사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것을 골라야 한다는 것도 여기에서 일하면서 배운 점이에요.



선님
최희정

오보이! 잡지를 즐겨보는데, 인기가 많아 무료배포처 가면 그 달의 잡지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오보이!샵이 생기고 과월호를 구입하러 오가면서 이곳 물건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파는 제품들은 미래의 지구를 위해 가치 있는 제품들이에요. 대형마트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여기서 생활용품을 사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게 되었어요.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행동하는 동물사랑 · 입양뜰

H D S

행동하는 동물사랑(이하 행동사)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비영리 민간봉사단체이다. 입양뜰은 유기동물 입양을 홍보하기 위해 행동사가 오픈한 입양카페이다.

파주에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봉사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을 원하는 일반인의 출입은 힘들다. 만약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유기견을 만날 수 있다면, 입양에 대한 턱도 낮아지지 않을까. 입양뜰은 행동사의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거리 입양 이벤트를 해왔지만, 유기견을 가까이 만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입양뜰은 다르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행동사가 관리해온 유기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유기견이라고 해도 매장이나 가정에서 관리하는 개들과 다른 점은 없다. 행동사의 스텝들과 봉사자들이 늘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스텝 역시 자원봉사자들로 이뤄져 있다. 입양뜰은 초등학교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1인당 입장료를 내고 들어올 수 있다.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입장도 가능하다. 입장료 5,000원은 유기견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인다. 입양뜰에서는 유기견 입양에 대한 상담과 신청도 가능하다.

매주 토요일에는 입양뜰에 상주하는 유기견 외에도 파주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10~12마리 정도를 데려다놓고 입양 캠페인을 한다. 이때 와서 직접 본 유기견을 입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직접 유기견 입양은 어렵지만, 유기견을 두고 싶은 이들이라면 입양뜰을 통해 정기적인 후원을 할 수도 있다.

입양뜰
 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613-13 은연재빌딩 2층
 입장료 1인 5,000원(동반 1견 무료, 추가 1견 3,000원)
 시간 12:00~20:00
 안내 02-6015-6543

Mini Interview



스텝
전지혜

입양뜰이 생기기 전, 행동하는 동물사랑에서 매주 봉사를 했어요. 입양뜰이 생기고 나서는 이곳 스텝이 되었고요. 시우라는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다가 입양했는데 원래 키우던 동남이라는 개와 잘 지내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스텝을 하지만, 힘들기보다는 보람 있어요. 유기견 입양 상담을 하면서 입양을 성사시킬 때마다 뿌듯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유기견 입양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손님
조희정

입양뜰을 통해 엄마 견과 새끼 견을 임시 보호한 적이 있었어요. 일 년 정도 데리고 있다가 정이 들어서 새끼는 제가 입양을 했어요. 유기견 관련 TV프로그램을 보다가 딸이 유기견을 두고 싶다고 해서 행동하는 동물사랑에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딸보다 제가 더 빠져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입양뜰에 후원과 봉사를 하면서 여기서 유기견을 계속 살피주고 싶어요.

내)곤 한다. 떠난다면 어디로 가야할지, 하룻밤을 묵어야한다면 어디에서 자야 할지, 어디에서 먹어야 할지,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면 좋고, 어떠한 영화를 보는 것이 안전하고, 어떤 레저를 개발할 수 있을지. 묻고 또 묻는다. 이른바 검색은 마치 자신이 모르는 신세계를 탐험하는 인상을 주고, 그래서 삶의 광대한 차원을 열어주는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묻고 또 묻고, 때로는 쓰고 묻고, 계속해서 묻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남는 이 허탈함은 과연 일시적인 것일까. 그렇게 물어서 얻은 것이, 실제로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현실과 그 과정에서 교묘하게 쌓이는 이 실망과 배신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찾아간 '맛집'이 진짜 '맛집'이 아니었다던가, 교묘한 상술에 '억지 춘향 격'으로 붙잡힌 숙소에서 불쾌한 하루를 보내야 했다던가, 나에게 맞지 않은 레저를 위해 엄청난 금액을 써야 했다던가 등의 극단적인 피해 사례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검색과 서핑으로 인해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때가 적지 않다.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이 실상 우리 내부에 있었는데, 화려하게 치장된 '나'들의 세계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도 드물지 않다. 자신의 생각과 바람을 측정하기보다는 타인의 욕망과 언술에 자신을 맞추고 있을 때가 의외로 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선택 속에 과연 '나'는 얼마나 들어 있었을까. 아니, 선택한 사람이 과연 '나'이기는 했던 것일까.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의 쌍곡선

르네 지라르는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직접, 그리고 스스로 생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목표로 삼은 무엇을 얻는 과정(그것이 애인이든, 집이든, 권력이든, 심지어는 인생의 목표이든 간에)에서,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복사하고 전이하고 소유함으로써 이러한 욕망에 다가갈 수 있을 뿐이라고 단정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적지 않은 의문을 남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르네 지라르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 즉 '나' 아닌 다른 나(들)의 의견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속성이 있다는 정도의 합의는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SNS는 이러한 '나'들의 속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거꾸로 수많은 '나'들을 의식하고 '그(타인)'로 떨어져 존재해야 각각의 '나'들로부터 필요 이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비단 SNS의 폐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미 여러 현자와 석학들이 지적한 대로, 실제 세상에 대한 대항체 혹은 보완책으로서 사이버(가상)세계에 대한 경도는 이미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 세상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루려는 욕망은 가뜩이나 복잡한 '나'를 더욱 복잡하게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기까지 했다. 이러한 위험에 SNS는 분명 한몫 거들고 있다.

시간이 쌓이는 곳에, '나'도 함께 쌓인다.

현대인에게 SNS는 새로운 필기도구이다. 조선시대 문장가가 먹을 갈아 한 자 한자 글을 쓰며 상소문을 작성하고, 그 상소문으로 세상에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한 점과 기본적으로는 하등 다를 바 없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의 젊은이들은 때로는 성급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의견을 SNS를 통해 드러내는 일에 익숙하고 또 열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인 글쓰기로 긍정하기도 한다. 미닝 아웃의 분화된 의미 속에는 이러한 글쓰기도 담겨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글쓰기 방식에는 그만큼의 속도와 시간차도 내장되기 마련이다. 먹을 갈아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며, 함부로 고쳐 쓰기 곤란한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쓴 글이 허투루 쓰여 질 수 없으며, 또한 그 내용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투여된 시간에 비례하지 않을 수 없다.

SNS는 이러한 시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도구이다. 글쓰기에 누적된 시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시간을 줄이는 데에 이 필기도구의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자신이 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른 시간 내에 읽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글(정보)들은 시간차를 무시하고 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의 속도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사이버 속 공간 어딘가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가능하겠지만, 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더 영향력 있게 자신의 글을 읽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므로, 하나의 논점에 대해 투여될 시간이 줄어드는 것마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적지 않은 필기도구를 연마해왔다. 붓→연필→샤프→볼펜→타이프라이터→전통타자기→워드프로세서(버전 업 진행 중)→최신 SNS까지. 변화의 이유는 더 편리하거나, 더 빠르거나, 혹은 더 자신을 영향력 있게 드러내는 도구가 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필기도구의 발전에 의해 자신을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고 안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서서, 시간을 들여서 다시 물어보자.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만 하는 질문이다. 자신(의 의견)을 더 빠르게 드러내고, 자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더 영향력 있게 노출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변화하거나 달라지는 것일까. 아니, 보다 온전한 '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일까. 사이버 세상에서 SNS를 빌려 자신을 치장하고 속 빈 강정처럼 외면적 화려함을 앞세우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질문은 더욱 집요해지고 또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그 속의 '나'가 정말 '나'일까. 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읽도록 만드는 일이, 과연 '나'를 '나답게' 만드는 최선일까(반드시 시간을 들여서만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다). SNS는 한 가지 공평함을 가지고 있다. 그 속도만큼, 글 속의 나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

〽️
 SNS에 자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더 영향력 있게 노출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변화하거나 달라지는 것일까. 아니, 보다 온전한 '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일까. 사이버 세상에서 SNS를 빌려 자신을 치장하고 속 빈 강정처럼 외면적 화려함만을 앞세우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질문은 더욱 집요해지고 또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그 속의 '나'가 정말 '나'일까. 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읽도록 만드는 일이, 과연 '나'를 '나답게' 만드는 최선일까.

〽️



일 년 열 두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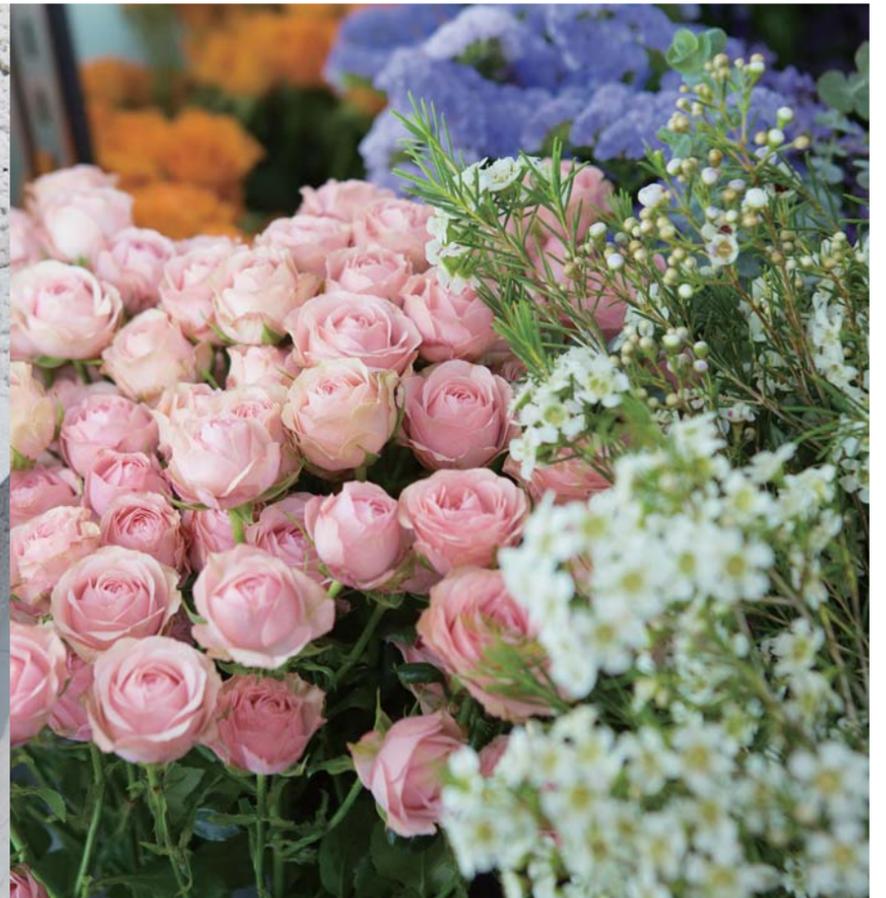


향기로움 가득한
일상을 꿈꾸는 곳

꽃 집 일 년 열 두 달

우리는 늘 꽃과 함께한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는 축하의 의미를 담아, 한 사람의 생이 끝나 그를 기념하는 순간에는 추모와 위로의 의미를 담아 꽃을 건넨다. 탄생의 기쁨과 죽음의 아픔을 모두 나타내는 꽃은 어쩌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가장 완벽한 매체일지도 모르겠다. 꽃집 일년열두달은 그런 꽃이 일상이 되길 바란다.

글 권유진 사진 김오늘



**꽃,
운명이 된 뜻밖의 만남**

수원에서 가장 북적거리는 곳 중 하나인 나혜석거리에는 이른 아침이 되면 지난밤의 왁자지껄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술과 음식을 팔던 가게들은 거리를 채웠던 간이 테이블을 곁에 접어놓은 채 문이 닫혀 있고,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위해 바쁘게 걸어간다. 햇살이 비치며 주위가 잠잠해진 순간, 나혜석거리 한편에 자리한 일년열두달이 눈에 띈다. 2016년 10월 문을 연 이곳은 꽃이 일상이 되길 꿈꾸는 이민정 플로리스트의 바람이 담긴 작은 꽃집이다. 일년열두달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꽃향이 코를 감쌌다. 향기에 적응해갈 때쯤 이번에는 아기자기한 화분과 곳곳에 걸려 있는 드라이플라워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민정 플로리스트가 꽃에 매력을 느낀 것은 3년 전. 대학에서 공간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취업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던 딸에게 어머니는 취미로 꽃을 만져보길 권했다.

“엄마가 10년 넘게 꽃꽂이를 취미로 하고 계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작품을 만든다고 밤새 꽃과 씨름하는 모습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 역시 꽃이 보기 좋은 건 사실이지만 잠깐의 아름다움 때문에 거금을 들여서 꽃을 사는 게 선뜻 내키진 않았거든요. 플로리스트라는 직업도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죠.” 망설임도 잠시, 그는 빠르게 꽃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가지에 붙어 있는 잎을 정리하고, 제각각인 줄기의 끝을 다듬고, 잎 색깔에 맞춰 이리저리 조합하는 잠깐의 시간이 뜻밖의 휴식이 되었기 때문. 꽃을 만지는 동안 앓고 있던 마음 속 고민들도 자

연스럽게 사그라들었다. 그렇게 꽃은 그에게 일상이 되었다.

이민정 플로리스트는 그길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고, 꽃집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옷가게였던 건물을 개조하고, 후배들과 함께 직접 페인트칠을 해 건물 외벽을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바꾸었다. 보기만 해도 꽃향기가 전해져오는 내부 인테리어도 전공을 살려 직접 담당했다.

“오픈하고 나서 얼마 후 주변 상가 사장님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동안 식당과 술집만 있어 거리가 너무 삭막했는데, 꽃집이 생기니까 거리가 밝아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 역시 계속 수원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그 인사가 정말 뿌듯했어요.”



**소중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단 하루의 시간**

일년열두달에서는 판매와 플라워 레슨을 함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하루 동안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원데이 클래스가 가장 인기가 많다. 장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일년열두달에서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며 잠시 동안 온전히 꽃을 만지는 일에 집중한다. 이민정 플로리스트는 “싱그러운 꽃향기를 맡으며

자신만의 미적 감각으로 색색의 꽃들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라며 꽃의 매력을 전했다.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 중 대부분은 꽃을 처음 다루보는 사람들이 많아 초보자들도 따라 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한다. 생화와 드라이플라워를 사용해 꽃다발을 만드는 핸드타이드 수업과 나무로 된 리스틀에 드라이플라워를 엮어 꽃리스를 만드는 수업도 인기가 많다. 꽃을 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는 생화보다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원데이클래스에서 만든 제작물은 직접 가져갈 수 있어 주로 연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찾는 강습생들이 많다고 한다.

“한번은 사회복지센터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하셔서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과 수업을 했어요 마음처럼 꽃을 섬세하게 다루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작업해 오랜 시간 끝에 완성할 수 있었죠 수업 내내 집중하느라 무표정한 얼굴이었는데, 완성하고 난 뒤 그 어떤 미소보다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때 꽃을 다루는 일이라는 게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앞으로도 이런 꽃의 매력을 전하고 싶어요”



**아무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드는
꽃의 에너지**

초보 꽃집 사장인 이민정 플로리스트는 처음에는 꽃집 운영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냈다. 꽃을 만지는 일 외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어버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등 손님이 많을 때에는 온 가족 모두 일년열두달로 출동했다. 지난달에야 비로소 첫 휴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그는 그럼에도 꽃을 만지는 일이 늘 즐겁다고 웃는다.

“첫 어버이날을 앞두고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저와 엄마는 주문받은 꽃다발과 꽃바구니를 만들고, 아빠는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다들 힘들어 하고 있던 와중에 마지막 손님으로 저희 엄마 또래인 중년 여성분이 오셨어요. 딸이 꽃과 편지를 주문했는데, 일이 바빠 영접 종료 전까지 못 올 것 같아서 엄마에게 부탁한 거였죠. 영문도 모르고 오신 손님이 딸이 준비한 선물에 감동하셔서 가게에서 막 우시는데, 정말 보람차고 기뻐요. 저에게 꽃을 권했던 엄마는 지금은 일이 너무 힘드니 그만 두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꽃집을 운영하면 할수록 이게 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민정 플로리스트는 꽃을 만지는 것 외에 꽃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다고 전했다. 일년열두달을 채운 아기자기한 화분들처럼 자신만의 정원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 꽃집을 찾는 사람들이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주는 기쁨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꽃은 우리 삶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늘 함께하고 있어요. 계절과 시간, 장소를 떠나 설렘과 행복을 전해주는 게 꽃이죠. 지친 일상 속에서도 테이블에 놓인 작은 꽃 한 송이만으로 행복해지듯 꽃은 특별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걸 전하는 게 일년열두달의 목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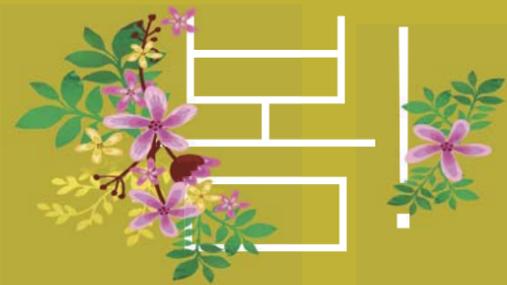
꽃이 행복이 되길 바란다는 이민정 플로리스트. 그의 손끝에서 피어날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는 향긋한 설렘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

일년열두달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80번길 49
운영 과정 별 상이(운영시간 11:00~21:00)
과정 꽃다발, 꽃바구니, 핸드타이드, 플라워클래스, 원데이클래스
문의 031-238-9266 / 1year12month@naver.com
사이트 <https://blog.naver.com/1year12mon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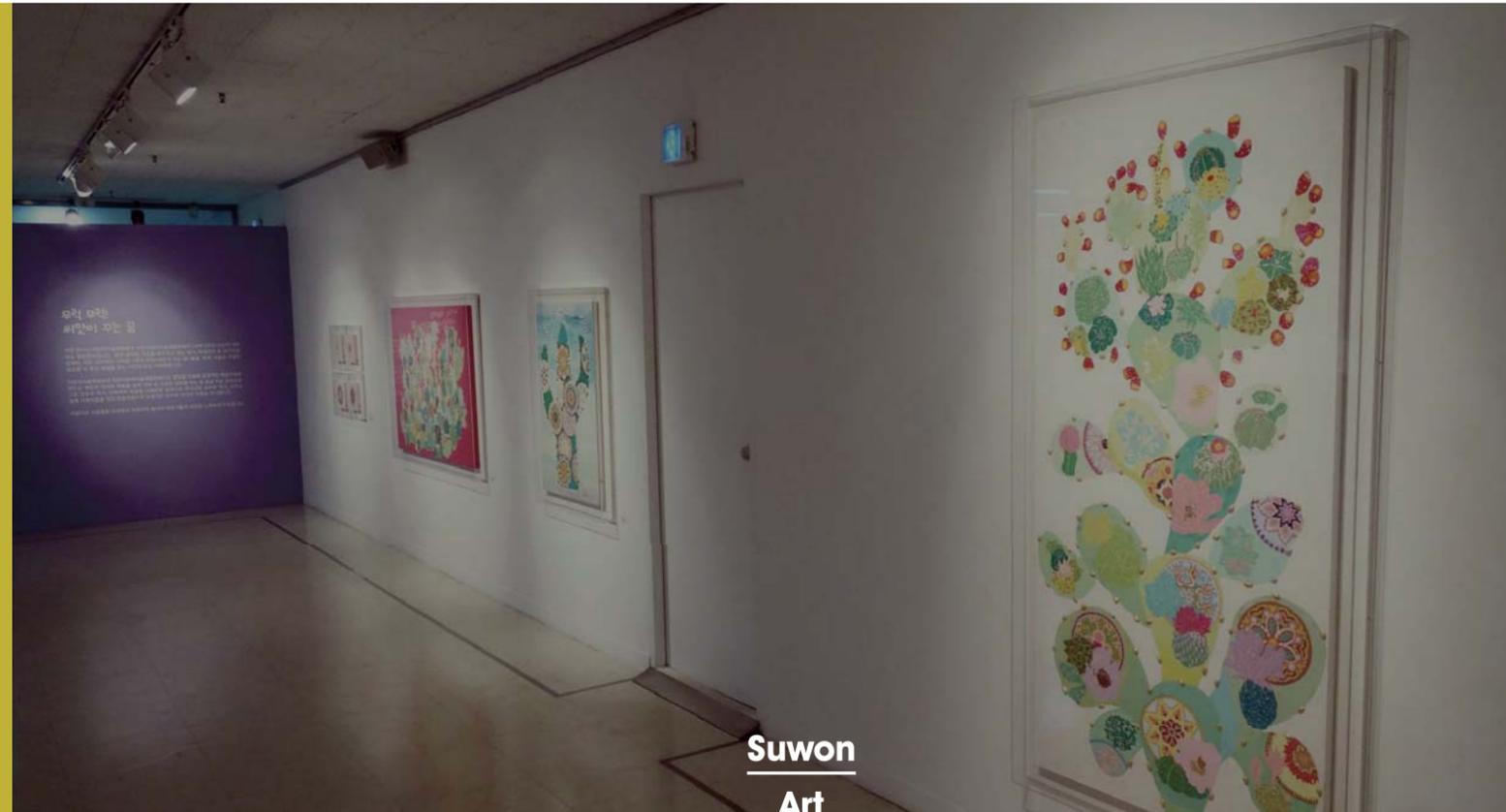
수원미술전시관에 찾아온



<무럭 무럭! 씨앗이 꾸는 꿈>

2018년 다가오는 봄을 맞아 수원시 어린이미술체험관과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이 합동전시를 개최했다. 두 어린이분관이 함께한 <무럭 무럭! 씨앗이 꾸는 꿈>전은 2월 27일에 시작하여 5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식물을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각각의 공간에서 어린이들에게 봄의 기운을 전한다.

글 이주현



Suwon
Art
Center



합동전시 <무럭 무럭! 씨앗이 꾸는 꿈>

2018.02.27(화) ~ 05.11(금)

수원시 어린이미술체험관과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은 합동전시<무럭 무럭! 씨앗이 꾸는 꿈>을 2월 27일(화)부터 5월 11일(금)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아이들에게 식물에 대한 애정을 길러주기 위해 기획된 전시로 어린이분관에서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를 위해 김보람, 백은하, 끈작가(안수빈), 장유정 총 4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각각의 작품은 어린이미술체험관과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으로 나뉘어 전시된다.

수원시 어린이미술체험관

꽃잎이 그리는 드로잉

1부 어린이미술체험관에서는 꽃잎을 활용해 창의적인 예술작품을 만드는 백은하 작가와 다육이의 형태를 만다라로 재구성한 김보람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백은하 작가의 작품은 제비꽃, 민들레, 장미, 패랭이, 수레바퀴, 양귀비, 아네모네, 양란, 무궁화 등 다양한 꽃잎들로 이루어져 있다. 작고 어여쁜 꽃잎들은 각각의 고유색을 한껏 뽐내며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채롭고 운율감있게 완성시킨다. 꽃잎 한 장이 저고리가 되고 치마가 되기도 하는 등 형형색색의 꽃잎들이 만드는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새롭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백은하 작가의 신작 중 하나인 <강아지 강강술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강아지들도 함께 춤을 추고 있어 그 모습이 더 정겹다.

만다라 다육이

1인 1가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식물도 각광을 받고 있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에 맞서 공기정화를 비롯해 심리적 휴식과 안정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육식물이다. 강한 생명력으로 인해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무럭 무럭 잘 자라기 때문이다. 김보람 작가는 이러한 다육식물들을 만다라로 표현한다. 만다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중심', '근원', '원'을 의미하며 부처의 깨달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상하 좌우가 대칭을 이루며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으로 그려지는 만다라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의 수단이기도 하다. 김보람 작가의 만다라 다육이를 통해 식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만다라를 통한 명상의 시간도 함께 갖길 기대해 본다.



김보람 <무제> 가변크기, 혼합재료, 2015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식물이 주는 아름다운 휴식

2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에서는 실제 식물을 예술로 승화시킨 끈작가(안수빈)의 다육이들과 장유정 작가의 '꿈을 꾸는 선인장', 그리고 김보람 작가의 작품들이 이어서 전시된다. 끈작가라고 불리는 안수빈 작가는 살아있는 다육식물들을 조형적으로 재구성하여 식물원이 아닌 미술관에 이들을 전시했다. 형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흙(넬솔)의 개발은 다육아트라는 새로운 공예의 장르를 만들어 내고 식물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깬다. 끈작가는 공기정화를 돕는 다육식물을 전파함과 동시에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수행하면서 자연을 한 번 더 생각했다. 먹고 버린 캔강통이나 우유곽을 재활용하여 만든 화분에 다육아트가 더해지면서 자연과 예술이 결합을 이루었다. 장유정 작가는 다육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식물인 선인장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했다. 무더운 사막에 홀로 쓸쓸하게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몸에 돋은 가시로 인해 외로웠을 선인장에게 작가는 친구와 연인을 그려주었다. 그의 선인장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며 친구들과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함께 사랑하고 꿈도 꾸다.

이번 전시는 의인화된 선인장을 통해 아이들에게 식물에 대한 친근감을 길러 줄 것이며 쉽게 키울 수 있는 다육식물을 이해함으로써 식물과 보다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체험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초록돌봄>은 아이들에게 화분을 만들고 씨앗을 심어보도록 하는 체험으로 실제로 식물을 길러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미술체험관 &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어린이미술체험관에서는 다양한 꽃들에 대해 공부하는 교육프로그램 <내 동생 꽃잎이>와 예쁜 꽃을 종이로 만들어 보는 체험프로그램 <식물접기>,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에서는 다육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 프로그램 <내 동생 풀잎이>와 화분에 씨앗을 심어보는 <초록돌봄>이 진행 중이다.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특별프로그램으로 계획한 <어린이 꽃잎-풀잎 페스티벌>에서는 꽃잎카드 만들기와 다육이 화분심기, 압화 배지 만들기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이번 전시는 식물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 감상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식물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키고 자연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전시연계프로그램

	어린이미술체험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교육프로그램 (10명이상 단체)	<내 동생 꽃잎이>전시설명을 듣고 활동지를 통해 꽃에 대해 알아보아요!	<내 동생 풀잎이> 전시설명을 듣고 활동지를 통해 반려식물에 대해 공부해요!
	신청: 온라인 접수-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wcf.or.kr(교육정보)	
체험프로그램	<식물접기>종이로 예쁜 꽃과 선인장을 만들어요!	<초록돌봄>화분을 꾸미고 씨앗을 심어요!

특별프로그램 <어린이 꽃잎-풀잎 페스티벌>

일시 : 2018. 5. 2 ~ 5. 5

장소 :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프로그램	<꽃잎 카드 만들기>	<다육이 화분만들기>	<꽃 배지 만들기>
진행시간	14:00~17:00		
내용	꽃잎 드로잉으로 카드 만들기(재료소진 시 마감)	끈작가(안수빈)와 함께 하는 다육이 심기 *5월 5일만 운영	식물 배지 만들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방법 -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wcf.or.kr(교육정보)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전시 전경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전시 전경

A

R

T

R

I

UM



W

I



2018 아트트리움 워드 유



TH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개의 해'가 밝았다. 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감동과 환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느덧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봄이 찾아왔다. 비록 미세먼지와 황사는 우리 마음 한편을 쓰리게 만들지만 그래도 늘 그렇듯 봄은 봄이다. 수원SK아트트리움 또한 늘 그렇듯 수원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사랑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관객을 맞을 좋은 공연을 준비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트트리움 워드 유' Artrium with You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수원SK아트트리움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공연 시리즈를 마련했다.

글 엄주용 공연기획팀

Y



O

U

‘아트리움 위드 유 Artrium with You 상반기 라인업 및 공연 리뷰 Review’

수원SK아트리움은 ‘아트리움 위드 유 Artrium with You’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18년 상반기 장르별 시리즈를 기획하여 관객들을 찾아간다.

우선 작년에 이어 우수 공연콘텐츠의 영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과 영화 애호가들에게 사랑받았던 <아트리움 시네마>가 상반기에 오픈되어 성료되었다. <SAC ON SCREEN>은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 작품(1월 -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 2월 - 연극 ‘달래이야기’, 3월 - 발레 ‘지젤’)을 <아트리움 시네마>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3개의 예술영화(‘일 포스티노’, ‘인생은 아름다워’, ‘피아니스트의 전설’)를 마찬가지로 무료 상영하였다. <SAC ON SCREEN>과 <아트리움 시네마> 사업은 하반기에도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무료로 상영할 계획이다.

<아트리움 클래식 데이트>는 상반기에 ‘비엔나왈츠오케스트라’를 올렸다. 새해의 시작을 흥겨운 왈츠음악과 춤을 통해 밝고 긍정적이게 시작하고자 왈츠의 중심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활동하며 언제나 화사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Vienna Waltz Orchestra)를 초청하여 많은 클래식 애호가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료되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지난 몇 년간 사랑받아온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이 시즌3로 다시 찾아왔다. ‘인간과 예술, 우리들의 삶과 사랑의 이야기’라는 콘셉트로 2018년 짝수 달 문화가 있는 날에 수원을 찾아온다. 성료된 첫 번째 공연(2월 27일 공연)은 ‘사랑과 이별, 예술의 영원한 테마’로 보타첼리, 라파엘로, 로댕 등의 세계적인 명작과 슈베르트, 슈만, 쇼팽 등 예술가들의 음악을 통하여 사랑과 이별이 예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승화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아트리움 하우스 콘서트>는 수원SK아트리움의 소공연장 특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하여 소공연장에 어울리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준비했다. 3월 31일 대한민국 대표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의 공연은 매진으로 많은 관객들의 관심 속에서 성료되었다. 피아니스트 최문석, 바이올리니스트 윤종수와 함께한 이번 공연에서는 반도네오 특유의 애절하면서도 섬세한 음색과 그루브 넘치는 사운드, 오케스트라 편곡부터 일렉트로닉 편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스펙트럼으로 독특하고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리틀씨어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공연으로 아트리움 대공연장 로비에서 진행되는 <리틀씨어터 In 로비>와 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는 <리틀씨어터 With 서커스>가 진행된다. <리틀씨어터 In 로비>의 4월 공연(행복한 초록색, 빨강풍선, 뒤집힌 호랑이)은 연극배우의 실감나는 도서 낭독과 연기를 통해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일부는 직접 극에 참여하기도 해 높은 관람 만족도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 5월에 진행될 예정인 공연들도 활발한 예매를 보이고 있다.

<아트리움 연극·뮤지컬 데이트>는 상반기에 어린이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을 공동기획으로 5월 12일(토), 13일(일) 2일간 6회 공연으로 가족단위의 관객들을 맞을 예정이며, 연기의 달인 ‘이순재’, ‘신구’와 실력파 젊은 배우 ‘김슬기’, ‘박소담’ 등이 출연하는 연극 ‘양리 할아버지와 나’를 6월 1일(금), 2일(토) 준비했다. 아트리움은 이번 상반기 라인업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장르에 높은 수준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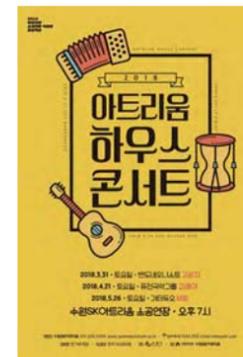
2018 아트리움 소공연장 특성화 프로젝트! <아트리움 하우스 콘서트>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4월 21일(토), 19:00 / 5월 26일(토), 11:00



수원SK아트리움은 연주자와 관객이 보다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고자 ‘2018 아트리움 소공연장 특성화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나른한 봄날,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강렬하고 매력적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힐링’하는 시간을 선사하고 있다.

4월 21일(토)에는 퓨전국악그룹 ‘고래야’가 무대에 오른다. 고래야는 3명의 한국 전통음악 연주자와, 보컬리스트, 기타리스트, 월드 퍼커셔니스트로 이루어진 국악/월드뮤직 그룹으로 2010년 데뷔 이래 한국 전통악기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의 한국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고래야는 2012년 벨기에의 월드뮤직 페스티벌 <스핑크스믹스드>에 초청을 시작으로, 2013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2015년 프랑스 칸느 <미뎀>, 2016년 캐나다 <문디알 몬트리올>, 2017년 뉴욕 <써머스테이지>에 참여하는 등 27개국 36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5월 26일(토)에는 기타듀오 ‘비토’의 공연으로 클래식계의 악동뮤지션으로 국내 유일의 남매 클래식 기타 듀오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비토VITO”는 거장을 뜻하는 ‘Virtuoso’의 줄임말로, 남매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성준과 이수진으로 구성된 기타 듀오로 클래식 기타에 대한 선입견과 한계를 깨트리고 익숙하고 친근한 오케스트라 레퍼토리를 클래식 기타로 들고 즐기며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통 클래식부터 국악·영화음악·라틴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오케스트라 음악을 남매듀오 ‘비토’의 폭발적인 연주와 유쾌한 해설로 만나볼 수 있다. <아트리움 하우스 콘서트>는 전석 1만원으로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자 3월 31일(토), 4월 21일(토), 5월 26일(토)
장소 소공연장
시간 오후 7시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
가격 1회, 전석 10,000원

인간과 예술, 우리들의 삶과 사랑의 이야기!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시즌3>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4월 24일(화), 11:00 / 6월 26일(화), 11:00



수원SK아트리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월 27일부터 12월까지 연간 6회에 걸쳐 고품격 강연콘서트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시즌3>를 기획하였다.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후 세 번째 시즌을 맞은 본 프로그램은 주부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매회 전석매진을 기록하는 등 수원SK아트리움의 대표적인 평일 낮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즌에는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 즉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다. '인간과 예술, 우리들의 삶과 사랑의 이야기'를 주제로 예술가들의 명작과 음악작품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예술전문작가 전원경의 해설로 들으며, 다양한 구성의 소규모 실내악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4월 24일(화) 공연은 '탄생과 죽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주제다. 미켈란젤로, 보쉬, 르누아르, 고야의 그림, 그리고 생상과 쇼팽, 슈베르트의 음악 속에 묘사된 탄생과 죽음을 통해 인간의 운명,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죽음의 무도', '장송행진곡'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6월 26일(화) 공연은 '미인과 팜 파탈, 치명적 유혹'이라는 주제로 예술가들은 미인과 팜 파탈 중 어떤 주제에서 더 치명적인 영감을 얻어 예술작품을 탄생시켰는지 전원경의 소개로 함께 들여다본다. 다빈치, 마네, 로트렉, 클림프의 명작과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비제 '아들의 여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등 클래식 음악이 함께 한다. 강연자 전원경은 <영국: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예술: 역사를 만들다>, <런던 미술관 산책>, <목요일의 그림> 등의 책을 썼다. 현재 서울 예술의전당, 천안 예술의전당, 대전 예술의전당 등에서 활발하게 강의하고 있으며, KBS 1라디오 '문화공감'의 고정 게스트로도 출연하고 있다.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은 전석 1만 2천원으로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관객들을 맞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자 4월 24일, 6월 26일(화)
장소 소공연장
시간 오전 11시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
가격 1회, 전석 12,000원

감상과 체험을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리틀씨어터>

<리틀씨어터 In 로비>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로비 5월 2일(수), 3일(목), 11:00
<리틀씨어터 With 서커스>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5월 9일(수), 10일(목), 11:00

어린이들을 위한 <리틀씨어터>가 수원SK아트리움에서 공연한다. 유치 찬란하게 재밌는 '서커스' 공연감상과 체험으로 미니광대가 되어볼 수 있는 <리틀씨어터 With 서커스>와 연극배우가 스토리텔러가 되어 우수도서를 연극적으로 재미있게 들려주는 오감충족형 공연 <리틀씨어터 In 로비>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리틀씨어터 In 로비>는 연극배우가 우수도서를 입체적으로 읽어주고, 보여주는 연극공연이다. 어린이들은 공연을 감상하면서 극 속에 참여하기도 한다. 감상과 더불어 책의 내용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재활용품놀이, 북아트 등)도 참여하고 공연장 투어도 진행된다. 5월 2일(수)에는 '비, 바람, 번개, 구름', 5월 3일(목)에는 '방

귀쟁이 머느리'라는 도서를 활용해 이야기 보따리를 푼다. <리틀씨어터 With 서커스>는 코미디, 저글링, 마임, 서커스 스킬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는 '마린보이'가 함께한다. 손수 제작한 소품들을 통해 공연을 진행하여, 관객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공연들을 보여준다. 공연 중 일부에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꼬마광대가 되는 체험을 포함하고 있다. <리틀씨어터 In 로비>는 개인 7천원, 단체(10명이상)는 5천원이고, <리틀씨어터 With 서커스>는 개인 1만원, 단체(10명이상)는 7천원이다. 자세한 정보는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생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감기 걸리지 마라.”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6월 1일(금), 20:00 2일(토), 16:00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

L'ETUDIANTE ET M.HENRI

2018. 6. 1.(금) 저녁 8시 - 6. 2.(토) 오후 4시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출연 6. 1.(금) 신구, 김슬기, 조달환, 김은희 / 6. 2.(토) 이순재, 박소담, 이도엽, 강지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능(만 7세 이상) | 공연시간 115분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및 예매 수원SK아트리움 031-250-5300 www.suwonskartrium.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주최 수원시 | 주관 수원문화재단 수원SK아트리움



일자 6월 1일(금), 6월 2일(토)
 장소 대공연장
 시간 1일 오후 8시, 2일 오후 4시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
 가격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고집불통 할배와 상큼발랄 대학생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는 명품 연기를 선보이는 대배우 '이순재', '신구'와 실력과 젊은 배우 '김슬기', '박소담', 그리고 개성 넘치는 연기력으로 무장한 이도엽, 조달환, 김은희, 강지원 배우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2012년 프랑스 초연 이후 지금까지 앵콜 및 투어 공연이 흥행하고 있으며 2015년 바리에르 재단 희곡상 수상 및 2015년 동명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던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프랑스 코미디 연극이다. 70대 독거노인과 20대의 방황하는 청춘, 40대 불임 부부까지, 재미있고 공감되는 캐릭터들을 통해 나 자신과 가족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휴먼드라마이다. 프랑스 시골마을에서 뭐하나 제대로 되는 일 없이 아버지의 잔소리를 달고 사는 콘스탄스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꿈꾸며 파리에서의 독립을 결심한다.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까칠, 도도, 괴팍한 도시 할배 앙리의 집에 입주하고자 콘스탄스는 그의 까다로운 입주조항을 통과하고 가까스로 앙리와 룸메이트가 된다. 절대 어울리지 않는 앙리와 콘스탄스의 예측불가한 동거생활에서 오는 에피소드의 이야기로 나와 주변을 되돌아볼 수 있는 드라마이다. 서울에서 성황리에 본 공연을 마치고 익산, 성남, 대전 등 지방투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본 공연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이고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관객들을 맞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우 출연일자>

날짜	앙리	콘스탄스	폴	발레리
6/1(금) 저녁 8시	신구	김슬기	조달환	김은희
6/2(토) 오후 4시	이순재	박소담	이도엽	강지원



봄날의
나른함을
행복한 만찬으로
깨워주는 곳

브런치 카페 색다른 메뉴 즐기기

따뜻한 봄이 오니, 모든 게 귀찮고,
은몽은 나른해진다. 하루쯤은 평일 아침처럼
급하게 챙겨먹는 식사가 아닌 잠시나마
햇살 좋은 카페 창가에 앉아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싶다.
따사로운 봄날, 헛헛한 당신의 뱃속은
든든하게, 마음은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브런치 카페를 소개한다.

글 권유진 사진 김요늘

소고기와 진한 치즈가 어울리는
이탈리아식 샌드위치, 파니니

슬 리 핑 테 이 블



행궁 옆 주택가 골목, 키 낮은 건물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이곳에 특별한 장소가 숨어있다. 브런치 카페, '슬리핑 테이블'이다. 슬리핑 테이블은 대표 박상연 씨의 할아버지부터 3대가 40여년 살아온 집을 리모델링해 만든 곳으로 1층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박상연 씨와 반려묘들이 함께 살고 있다. 마당을 지나 슬리핑테이블에 들어서면 오래된 가정집의 빈티지한 느낌이 가득하다.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 테이블과 의자, 공간 곳곳을 채운 아기자기한 소품, 벽에 걸려 있는 액자와 여기저기 놓여있는 헌 책들까지. 인조잔디가 깔린 옥상에서는 넓게 펼쳐진 행궁동 일대가 한눈에 보이며 행궁동 골목에도 푸른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다.

슬리핑 테이블에서는 이탈리아식 파니니를 대표 메뉴로 판매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메뉴인 비프 앤 치즈 파니니는 수원에서 나고 자란 이성연 대표가 수원 갈비의 양념 방법을 차용해 구상한 메뉴다. 간장대신 소금과 참기름, 과일로 양념한 소고기와 진한 치즈가 조화롭게 어울린다. 그릴에서 빵을 한 번 더 구워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더없이 촉촉하다.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한 탓에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다. 이외에도 햄과 가지, 새송이 버섯, 프로볼로네 치즈를 넣은 파머스와 빨갈계 익은 무화과와 부드러운 브리 치즈로 풍미를 낸 무화과 파니니 등 다양한 파니니를 즐길 수 있다. 문을 연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정겨운 인테리어와 음식 맛에 한 번 더 들르는 사람들이 많아 주말에는 웨이팅 시간이 제법 길다.

흥미로운 것은 슬리핑 테이블의 모든 메뉴가 이성연 대표의 즉흥적인 조리법으로 탄생했다는 것이다. 미술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그에게 음식점 경영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병행해 운영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서양요리를 자주 만들어주셨는데, 그 때문인지 저 역시도 독립하고 나서 샌드위치를 자주 만들어 먹게 되었죠. 슬리핑테이블을 열고, 나름 아이디어를 얻어 메뉴를 선보였는데 게스트하우스보다 제 요리를 먹으러 오시는 손님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교수를 꿈꾸며 대학원에 진학한 그에게 슬리핑테이블은 하루하루 더 큰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1시간 넘게 기다려 화가 났던 손님은 계산을 하면서 '너무 맛있어서 화가 풀렸다'며 단골손님이 되었고, 웨이팅이 길어지는 동안 함께 기다리던 손님들은 친구가 되어 또 한 번 슬리핑테이블을 찾았다. 이성연 대표는 “시작이 쉽진 않았지만, 보람이 너무 커 그만두지 못할 것 같아요. 귀하고, 고마운 손님들이 잠시나마 휴식하고 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며 바람을 전했다.



대표 이성연

저에게 수원은 페르시아 떨 수 없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슬리핑테이블의 공간은 내게는 저희 가족과 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죠. 수원에 이런 소중한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면 지금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슬리핑테이블을 찾는 모든 분들이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슬리핑테이블

위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23번길 51-10
시간 매일 12:00 - 21:00, 라스트오더 20:00,
매주 수요일 휴무
문의 031-255-3723

추천메뉴

- 비프 앤 치즈 파니니 13,000원
- 파머스 파니니 13,000원
- 고르곤줄라 파니니 13,000원
- 무화과 파니니 13,000원
- 페스토 치킨 13,000원





싱싱한 샐러드와
촉촉한 프렌치 토스트

M i n t & N a m u



금곡동과 호매실동 아파트 단지 앞에 위치한 카페 'Mint & Namu'는 인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브런치 카페다. 통유리로 된 외관은 밝은 햇살의 생기로움을 손님들에게 전해주며, 탁 트인 내부로 들어서면 대표 이수환 씨가 직접 고른 화분들이 힘찬 기운을 가져다준다. 이수환 씨는 2년 전, 도심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풍경에 반해 금곡동에 카페를 열게 됐다고 한다.

“카페를 열기로 결정한 뒤, 어떤 컨셉과 분위기로 만들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몇 해 전 아내와 함께했던 제주도 여행이 기억났죠. 올레길을 한참 걷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프렌치 토스트와, 우유, 과일이 담긴 브런치를 제공해주었어요. 힘든 여행길 때문이었는지 그 브런치가 정말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다주는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브런치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카페의 이름처럼 민트색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 Mint & Namu에서는 가성비 최고의 브런치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신선함이 가득한 샐러드와 달걀물을 머금은 폭신하고 촉촉한 프렌치 토스트,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로 구성된 나무브런치가 6900원, 고소한 오믈렛과 소시지, 베이컨, 샐러드로 구성된 민트브런치가 7900원이다. 대부분의 음료도 4000원 내외로 판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메뉴가 훌륭한 맛을 자랑한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많은 Mint & Namu는 주민들의 정을 얻을 수 있는 장소기도 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님들은 Mint & Namu에서 학교 정보부터 소소한 준비물까지 대화를 나누고, 이웃의 생일처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도 이곳을 찾는다. 요리하길 좋아해 가끔씩 카페에서 음식을 만드는 이수환 대표는 이를 스스럼없이 손님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문을 연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매일 카페를 방문하는 단골손님도 많이 생겼다.

“처음 오픈할 당시, 만삭의 몸으로 카페를 찾은 손님이 계셨어요. 그 이후로도 자주 방문해 주셨는데 지금은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만큼 자랐죠. 꾸준히 카페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Mint & Namu에서는 한 달에 한번, 수원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들의 버스킹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분위기에 들렀다 맛에 반해 단골이 된다는 Mint & Namu에서 든든한 브런치를 즐겨보자.



대표 이수환

카페를 운영하는 하루하루가 늘
설레고 즐겁습니다. 제가 문을
늦게 열거나, 빨리 닫는 날이면
손님들께서 무슨 일도 없는지
걱정해주시고, 과일 하나라도 나무주실
때면 더 좋은 인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집사내나 Mint & Namu를
찾는 분들도 더 많이 행복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Mint & Namu

위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18번길 54-1
시간 매일 10:30 - 22:00
문의 010-4314-8079

추천메뉴

나무브런치 6900원
민트브런치 7900원
자몽에이드 4500원
허니브레드 4000원
햄치즈치아버타 6900원



고소한 호밀빵과 소고기 토마토소스의 만남
라구샌드위치

카 페 라 띠 오



햇살을 가득 머금은 테라스가 반겨주는 '카페 라띠오'는 '비율'을 뜻하는 그 이름처럼 커피와 브런치의 황금비율 레시피를 자랑한다. 내부로 들어서면 식물과 꽃이 가득한 인테리어에서 대표 송윤진 씨의 감성을 엿볼 수 있다. 1년 전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 라띠오를 열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수원에서 엄마와 언니가 카페를 겸한 꽃집을 운영했어요. 그 일을 도와주면서 커피에 매력을 느껴 제 카페를 열게 됐죠. 매일 아침 정성이 가득 담긴 커피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일이 소소하지만 참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색다른 분위기로 운영하고 싶어 브런치도 함께 판매하게 되었어요.”

카페 라띠오에서는 호밀빵 위에 이탈리아 전통 미트 소스인 '라구^{Ragù}'를 얹은 라구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다. 라구소스는 소고기와 각종 채소, 토마토를 넣고 5~6시간 끓여내 만든다. 송윤진 대표는 “손이 너무 많이 가는 탓에 애증의 메뉴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뿌듯한 메뉴”라고 한다. 라구소스는 오랜 시간 끓여내야 해 많은 양을 준비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매번 품절된다. 빵 사이에 두꺼운 팔 앙금과 고 메버터를 넣은 '앙버터'도 인기메뉴다. 부드러운 식감의 빵과 달달한 팔, 고소한 버터의 독특한 조합이 만난 앙버터는 카페 라띠오를 방문한 손님들의 인스타그램에서도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 판매되는 메뉴 모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했어요.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이전에 제가 먹어보았던 다양한 음식들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먹고 싶은 음식을 기반으로 만들었죠. 단순한 발상이었는데, 손님들도 좋아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세류동 아파트 단지와 지역 동사무소 근처에 위치한 카페 라띠오는 주민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다. 덕분에 젊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브런치가 익숙하지 않은 50대 손님들도 많다. 주변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한 주민들도 “카페 라띠오의 커피와 브런치가 생각나서 들렀다.”며 멀리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송윤진 대표는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추억 속에 소중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카페 라띠오와 함께할 것 같아요.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딸만큼 꽃도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꽃의 다양한 이미지를 접목해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어요. 대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보려고요.”

카페를 차리고 나서 많이 바빠졌지만 마음은 훨씬 행복하다는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더 향긋해질 것만 같다. 🏠



대표 송윤진

운영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초보 사장님이라 더 좋은 가게를 만드는 방법을 매일 연구하게 됩니다. 점심들이 만들어서 원수를 행복하게 되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카페를 열길 잘했다고 느껴요. 처음 카페 라띠오를 열었고 그때로 앞으로 최고의 비율과 초상의 맛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페 라띠오

위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0
시간 매일 09:00 - 23:00
문의 031-233-3536

추천메뉴

- 라구샌드위치 13,000원
- 앙버터 6,500원
- 브런치 세트 14,800원
- 오픈샌드위치 5,500원
- 수제 달기차 5,500원



바쁜 일상 속
쉼표를
그리는
여유로운 순간들

수원의 힐링 명소

,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반복되는 지루한 생활 속에서
내 마음조차 들여다 볼 여유가 없을 때가 많다.
하루쯤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마음속의 이야기 꺼내어
지친 나를 안아본다.

글 강일서 사진 김오늘, 경기도·수원시 제공



누군가 난센스로 가장 잠들기 좋은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 온 적이 있다. 평소에 불면증이 있는 내가 가장 잠들기 좋은 시간이 언제였는지 고민하던 중에 그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다. 바로 잠자리에서 막 눈을 떴을 때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숙면을 취한 사람도 밤새 뒤척인 사람들도, 출근 전 알람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만큼은 항상 아쉬움이 남은 시간일 것이다. 어쩌면 일상에 눈을 뜬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속 여유라는 두 글자를 잊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미디어는 더욱 힐링과 율로라이프 이제는 워라밸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침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얼굴이 다르듯 모두의 삶이 초콜릿처럼 달달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마다 느끼는 기쁨과 만족의 척도는 다르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집에서 오매불망 기다리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주말이면 만나는 애인이 될 수도 있다. 조용한 커피숍에서 갖는 혼자만의 독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고된 일과 뒤에 친구들과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유난히 바쁜 한 주였다면 그 시간이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질 것이다.

지금도 바쁘겠지만 조금은 여유를 갖고 주위를 둘러보며 작아서 보지 못했던 것들, 늘 곁에 있어서 몰랐던 것들, 눈에 보이지 않아 놓쳤던 소소한 행복을 주변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멀리 떠나지 않아도

수원의 크고 작은 공간들이 즐거운 그림들을 만들어낸다. 이 공간들이 당신에게도 작은 행복을 가져다줄지는 모르지만 불현 듯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수고는 줄어든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동네 골목길 벽화부터 작은 갤러리에 걸린 지역 예술가들의 정성어린 작품을 보며,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또 애인과 함께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거리를 꾸민 공방거리와 플라마켓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수원 구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봐도 낭만적이다. 아니면 자녀와 함께 체험도 하고 책도 읽으며 조금은 시끄러운 주말을 보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저마다의 모습으로 조금은 솔직한 나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소소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출근 길 풍경이 얼마나 예뻐는지, 퇴근길 야경이 생각보다 낭만적이었는지 시간에 쫓겨 그렇게 작은 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러다 문득,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울적하며 내 인생이 서러워진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한다. 어느 순간 힘내라는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런 사람에게 위로는 힘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 충분히 힘드니까 쉬라고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나만의 힐링 공간에서 위로를 받아도 좋지만 당신에게 오늘은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날일지도 모르겠다. 충분히 열심히 산 고단한 하루였으니까...



수원아이파크시립미술관, 고색뉴지엄

화성행궁 옆 아담하고 모던한 미술관의 어울림은 도시와 자연의 배려로 빛어낸 근사한 풍경을 선사한다. 새롭게 꾸민 건축물 곳곳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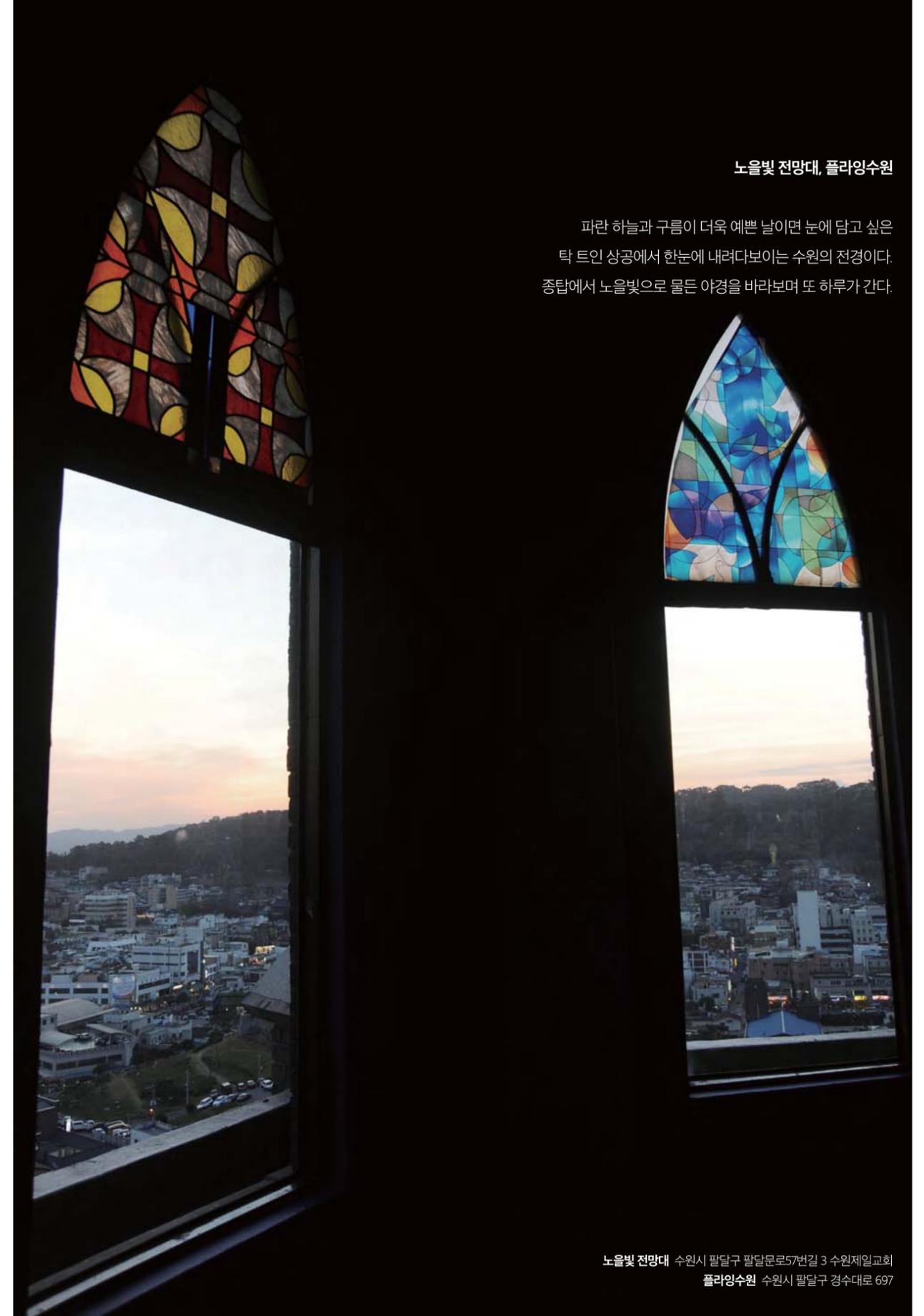
수원아이파크시립미술관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산로3가1
고색뉴지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 수원 산업1단지



행궁동 벽화마을, 전통식생활체험관

낮은 담장 너머, 한줄기 햇빛이 마루에 내려앉으며
밀집된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고즈넉한 그림이 펼쳐진다.
아기자기한 벽화가 남긴 그 포근함이 좁은 골목길을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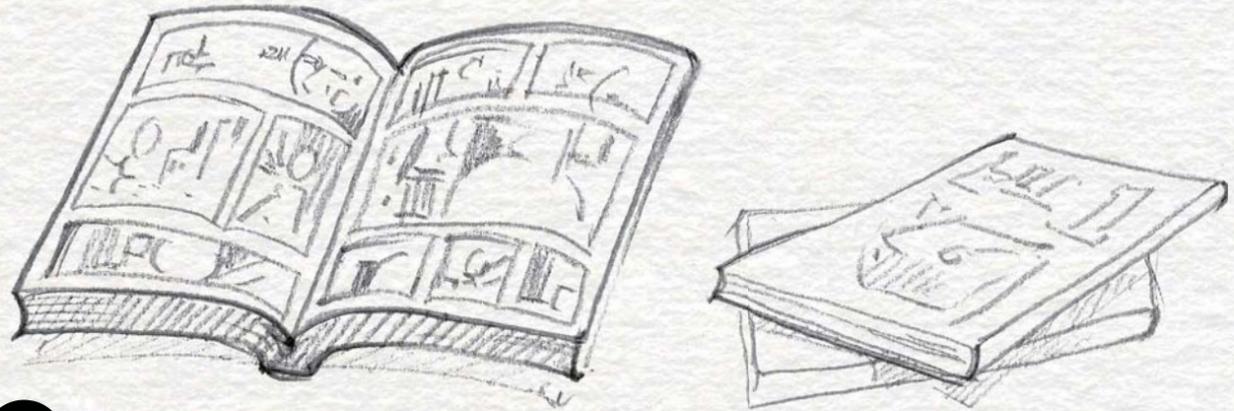
행궁동 벽화마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82-6 대안공간 눈 근처
전통식생활체험관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93



노을빛 전망대, 플라잉수원

파란 하늘과 구름이 더욱 예쁜 날이면 눈에 담고 싶은
탁 트인 상공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수원의 전경이다.
종탑에서 노을빛으로 물든 야경을 바라보며 또 하루가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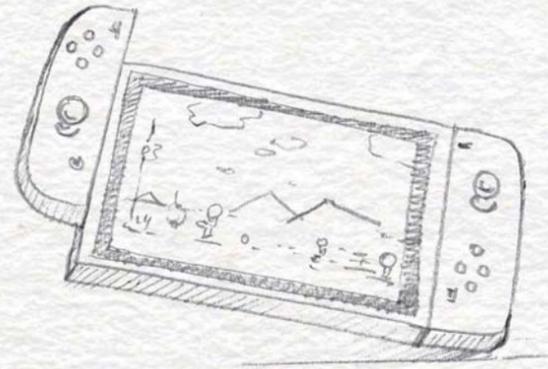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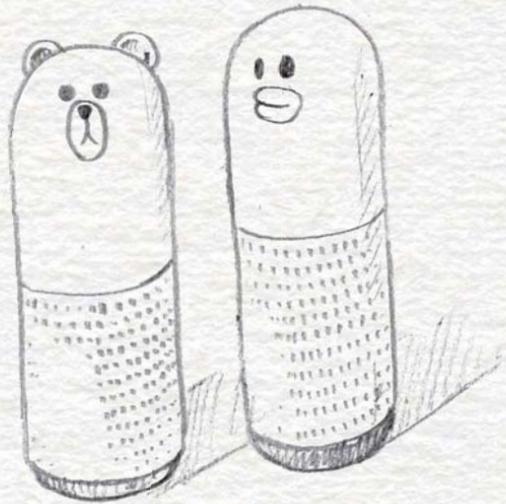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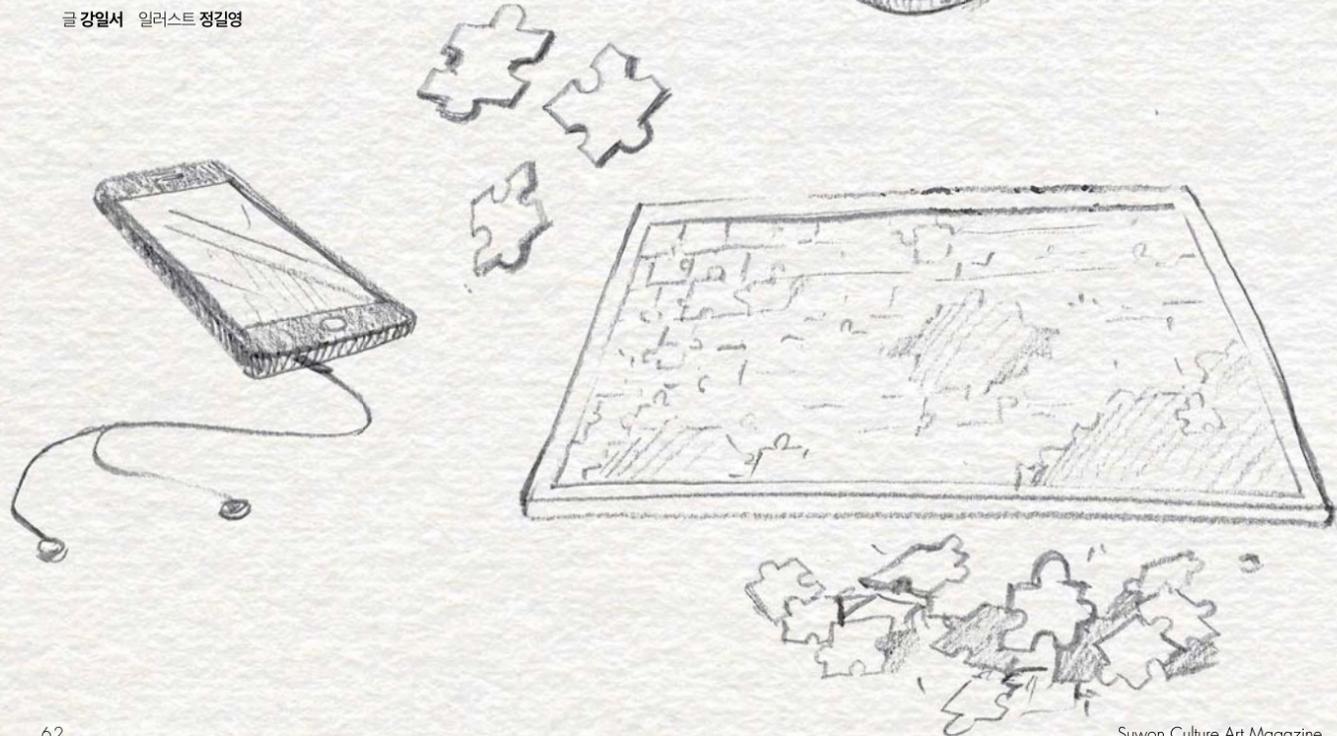
노을빛 전망대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57번길 3 수원제일교회
플라잉수원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97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시간, 집에서 혼자 놀기!

현대 사회는 혼자만의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자신만의 시간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단한 삶에 위안과 활력을 주는 혼자 놀기의 진수. 소소하지만 작은 것들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은 지루한 일상으로의 해방감과 기쁨을 잠시나마 누리게 해준다.

글 강일서 일러스트 정길영



4. 넷플릭스, 플레이스테이션 등 게임기

게임은 이제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현실을 이어주며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앉아서 간단히 패드로 즐기지만 했다면 이제는 색다른 체험, 체감을 통해 생각의 범위를 넓혀 준다. 게임기와 VR(가상현실) 헤드셋은 플레이어의 움직임에 맞춰 실감나는 VR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게임이라는 콘텐츠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게임 속의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 또 다른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다.

1. 종이 만화책 보기

소식적에 한번쯤은 봤을 만화책, 책 대여점이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어느 순간 웹툰이 자리 잡은 시대가 되었지만 다시금 만화카페들이 붐을 일으키며 아날로그 감성을 깨우고 있다. 거친 질감의 종이를 빠르게 넘기며 스토리를 읽어가다 보면, 내 옆에 탑을 쌓은 만화책의 풍경을 보게 된다. 나도 모르게 웃고 울 수도 있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준다.

2. 컬러링북과 스티커 아트

심리 치료의 일종으로 시작된 컬러링북과 스티커 아트는 요즘 대세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연령대에 맞춘 다양한 주제의 컬러링북이 쏟아지고 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이나 생각들을 미술 활동을 통해 표현하며, 안도감과 감정의 정화를 통해 자아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의 효과도 있지만, 아름다운 디자인을 채색하고 멋진 패턴을 낙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조각 퍼즐 맞추기

작은 조각(피스)으로 이루어진 퍼즐 맞추기는 적게는 150 피스에서 많게는 10,000 피스까지 다양하다. 물론 초보에게는 A4 크기의 150 피스의 조각을 맞추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에 이내 중독되곤 한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과정을 거쳐 마지막 한 조각을 맞췄을 때의 쾌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5.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폰과 증비의 합성어인 '스몸비(SMOMBIE)'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지만 혼자 놀기에 스마트폰 만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드물다. 게임부터 셀카 촬영, 독서, 그림 그리기까지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티커나 비즈 등으로 나만의 휴대폰을 꾸미는 재미도 쏠쏠하다. 21세기 IT 기술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며 온전히 문명의 혜택을 만끽해도 좋다.

6. AI 스티커

진정한 '혼놀족'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두 번째며, 이불 밖에서 나가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다. 혼자 놀기에 달인에게 어울리는 개인 비서가 있으니 바로 스탠드얼론이 가능한 AI(인공지능) 스피커다.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TV 시청에서, 음악 감상, 음식 배달까지 목소리 하나로 해결이 가능하다. 친구에게 말을 걸듯이 물어봐도 명령어를 인식하며, 난해한 농담을 던지기도 하지만 점점 대화기술이 진화하고 있으니 앞으로 눈여겨 볼만하다. 🏠





Jean Mankeyung

예술 속,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

<미술관 옆 음악당>
전원경 강사

'사람과 관련된 모든 학문'을 의미하는 인문학은 그 범위가 꽤 광범위하다. 하지만 그 중 가장 핵심을 꼽자면 예술일 것이다. '인문학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예술은 시대의 역사와 종교, 정치, 사회, 문화를 모두 함축하고 있으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가장 널리 통용되는 분야기도 하다. 똑같은 공연과 전시라도 보는 사람이 그 배경에 대해 얼마나 어느 나라에 따라 개인에게 다가오는 깊이와 울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작가이자 인문학 전문 강사인 전원경 강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글 권유진 사진 김오늘

**39살,
다시 시작된 꿈**

전원경 강사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지만, 대학 전공은 흥미와 먼 주거환경학과를 선택했다. 당시만 해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려면 이과를 가야한다는 주위의 편견 때문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대기업에 입사한 그는 임원들의 국·영문 연설문 쓰는 일을 하며 글쓰기와 인연을 맺었다. 음반사에 서도 잠시 일하며 클래식 음반에 수록되는 소책자^{Booklet}에 곡 해설과 리뷰를 쓰기도 했다. 그 계기로 음악 월간지 <객석>에 입사해 기자로 활동했다.

글쓰기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던 그였지만, 일대일로 사람을 만나 취재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짧은 기자 생활 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그는 남편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결혼 10일 만에 영국으로 떠나게 된다. 그곳에서 시티대학교 대학원에서 예술비평 및 경영 석사 과정을 졸업한 그는 3년 동안 경험한 영국 생활을 <영국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로 펴냈다. 변화에 둔하고 느리게만 보이는 영국을 다각도에서 바라본 이 책은 2000년 초판을 낸 뒤 23쇄를 찍으며 스테디셀러로 거듭났고, 지난해 한정판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생활을 하던 그는 2009년, 또 한 번의 모험을 결심한다. 영국 글래스고대 문화 콘텐츠산업 박사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되면서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이다. 39살이란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란 생각에 9살 아들, 5살 딸과 함께 글래스고로 날아가 박사 학위를 시작했다. 1년 동안 입학을 미룬 채 고민할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글래스고에서 사용하는 영어가 스코틀랜드 특유의 억센 억양이 강해 일상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들과 딸아이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과 학교만 오가는 생활을 4년 동안 반복한 뒤에야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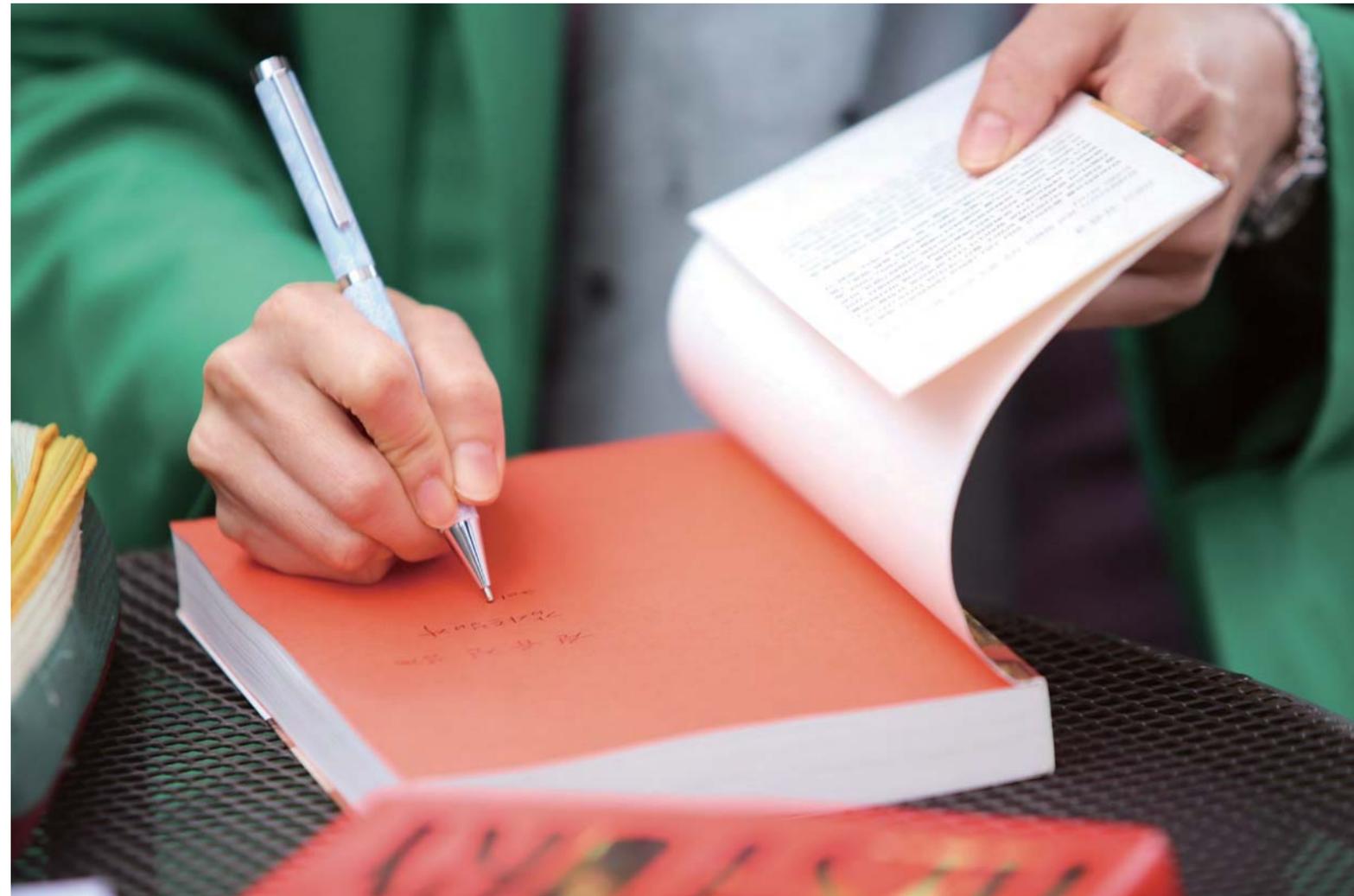
2013년, 그는 마침내 '정부의 정책 변화가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고 귀국했다.

**뒤늦은 유학생활,
공감과 위로를 건넨 예술**

귀국 이후 <런던: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서>, <예술가의 거리>, <역사가 된 남자>, <런던 미술관 산책>, <목요일의 그림> 등 다양한 책을 펴낸 전원경 강사는 현재 수원문화재단을 비롯해 서울, 대전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활발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KBS 1라디오 '문화공감'의 고정 게스트로도 출연하고 있는 그는 저서와 강연,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반인에게 어려운 예술 작품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박사 과정을 준비하며 오랜 시간 공부를 해온 그에게 강연 활동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를 물었다.

"글래스고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말도 통하지 않고, 아이들까지 돌보려니 너무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공연장에서 음악을 듣고 나면 힘든 시간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화가가 그림 속에 숨겨놓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쫓다보니 공감

Jeon Wonkyung





Jeon Wonkyung

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고, 내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이 같은 감정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예술 작품을 통해 받은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처음 강의할 당시 원고지 100매 분량의 강의안을 작성해 모두 외웠다는 전원경 강사는 “강의를 통해 예술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다.”고 한다. 그가 2016년부터 수원SK아트리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원문화재단의 <미술관 옆 음악당> 역시 이 같은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서양의 도시를 주제로 공간적 배경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예술 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미술관 옆 음악당>은 오케스트라 연주와 전원경 강사의 알기 쉬운 해설을 더한 콘서트 방식의 강의로 주부 층에게 큰 호평을 받아 전화 매진을 기록했다. 현재 세 번째 시즌을 진행 중인 <미술관 옆 음악당>은 ‘인간과 예술, 우리들의 삶과 사랑의 이야기’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원경 강사는 “<미술관 옆 음악당>은 강의를 하기 전부터 수강생들의 기대감이 얼굴에 묻어 나와 매번 부담과 즐거움을 함께 안고 간다.”고 웃으며 전했다.

체험과 경험에서 찾는 예술적 취향

“<미술관 옆 음악당>은 제가 관객들과의 교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강의예요. 저뿐만 아니라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죠. 강의를 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시작에 앞서 긴장하는 편인데 <미술관 옆 음악당>은 언제나 편하고 즐겁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인간’ 자체에 집중해 예술가들이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작품으로 태어났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강의를 통해 예술가나 우리나라 같은 인간이고, 먼 거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술 작품을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원경 강사는 “무엇이든 직접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술을 알고 싶다면 전시회를, 음악을 알고 싶다면 음악회를 찾아가 직접 보고 들으며 경험한 뒤 자신의 취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흥미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해도 된다.”고 전했다.

“미술 작품에 대해 논하고, 클래식을 듣는 게 어렵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록 음악을 좋아하고, 대중가요를 듣는 것과 같은 개인의 취향에 불과합니다. 삶이 풍요로워질 순 있지만 모른다고 문제가 생긴 않거든요. 그런 선입견을 버리는 게 예술 작품을 보다 쉽게 대하고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이 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을 위해 없던 공연장을 짓는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작은 음악회에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 같은 움직임이 모인다면 문화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예술 3부작’ 중 첫 번째 이야기 <예술, 역사를 만들다>를 출간한 전원경 강사는 현재 ‘도시’와 ‘인간’을 다룬 후속편과 클림트 평전 출간을 앞두고 있다. 누구에게나 쉬운 예술을 말하는 그가 들려줄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본다. 🏠

낭만의 숲 속의 파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원연극축제 임수택 예술감독

올해 22회째를 맞는 2018 수원연극축제가 기존 화성행궁 광장에서 장소를 옮겨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참신한 거리공연예술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장소'다. 경기상상캠퍼스는 나무가 많아 마치 숲 속과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 특성을 잘 반영해 작품을 골랐다는 임수택 예술감독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 **윤승기** 기획홍보팀 사진 **고병선** 예술창작팀 정리 **편집실**



INTERVIEW 01

1. 이번 수원연극축제의 주제와 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수원연극축제와 같은 공연예술축제는 구체적으로 주제를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 영웅이나 사건을 소재로 하는 축제라면 공동체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사회적 혹은 역사적 주제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예술축제에서는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수원연극축제는 거리극, 서커스, 공중퍼포먼스 등의 거리예술이 '소재'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예술작품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게 되겠지요.

2. 작년 수원연극축제와 이번 연극축제의 진행이나 운영 상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장소가 행궁광장에서 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대 농생명대)로 옮겼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축제에서 공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내공연장은 어디 가나 비슷하지만 야외공간은 장소에 따라 아주 다르지요. 야외에서 열리는 축제는 공간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상상캠퍼스는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 어울리는 공연들로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또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숲이라고 하는 공간의 구조적 성격을 적극 반영한 공연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일종의 '특정공간연극^{site-specific theater}'이 시도된다는 점에서 종래 수원연극축제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수원시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저는 일찌감치 연극을 해왔기 때문에 수원연극축제를 거의 초창기부터 계속 관람하였고, 한때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에 예술감독 공모가 나서 지원하게 되었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선정되어 축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 숲속의 파티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와 의미를 알려주세요

사실 '수원연극축제'라는 명칭은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즐거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파티'입니다. 게다가 장소가 숲이라면 더욱 낭만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숲속에서 파티를 벌이는 것은 아주 비일상적인 행위이지요. 축제에서 일상탈출 그러니까 일탈을 의도한다면 숲속에서 벌이는 파티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원연극축제는 공연예술축제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을 즐기면서 파티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음식과 술도 어느 정도는 빠지지 않겠지만요.

5.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일, 사람이 있다면?

글쎄 아직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고 없이 거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상 깊은 것은 수원문화재단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아주 열심히 일한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축제에서는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축제팀은 마치 처음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 새로운 공간에서 처음으로 축제를 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 이번 연극축제 감상 포인트? 관람객들이 이견 꼭 알고 연극축제를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

축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잔치가 아닙니다. 축제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이 공동체 의식을 다진다는 것이에요. 수원연극축제는 공연예술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뒤돌아보고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논의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축제를 '예술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일상을 바라보기 위한 잔치'라고 규정하곤 하지요. 따라서 각 공연예술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갖고 관람하시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7. 모든 준비한 연극들이 다 좋겠지만 그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작품 몇 개가 있을까요? 아니면 연령대 별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요?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다 제가 선택한 것이어서 특정 작품을 추천하기가 어렵네요. 팜플릿에 공연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자세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모든 연령대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 작품을 수용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프로그램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8. 다른 지역의 연극축제와 수원연극축제와의 가장 큰 다른 점이나 강점이 있다면?

축제를 감독하는 일은 공간을 연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공간이 다르면 다른 축제가 되는 것이지요. 올해 수원연극축제는 커다란 숲에서 열립니다. 이와 비슷한 축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또 숲의 분위기나 생김새가 다르겠지요. 따라서 수원연극축제는 근본적으로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열리되 숲을 배경으로 소극적 의미의 '특정공간연극'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여타 축제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열리는 축제가 4~5 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도심공간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도심공간은 소음이 많으며 커다란 건물과 광고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제들이 이같은 산만한 분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치러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숲에서 벌어지는 수원연극축제를 따라올 수 없다고 봅니다.

9. 다른 지역의 연극축제도 작업하신 걸로 아는데 수원만의 특수성과 수원연극축제 부흥을 위해 보완할 점이 있다면?

수원연극축제는 올해 예산이 30%나 깎였습니다. 지난해 평가가 아주 부정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저 역시 지난 몇 해의 축제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난 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다 처음으로 장소를 옮겨서 치르기 때문인지, 수원문화재단뿐 아니라 수원시도 올해 축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계자들에게서 수원을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이 아주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사명감을 잘 엮을 경우 수원연극축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수원연극축제가 근래에 난항을 겪은 이유 중 하나로 저는 예술감독의 전문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로 주된 직업이 있는 분들이 부업으로 축제를 맡았던 것이지요. 아울러 임기제 역시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대개 5년 임기로 계약을 하고, 별탈이 없는 한 계속 연장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축제를 감독하는 일이 아주 자주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축제감독의 임기가 2 년에서 3 년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의 신상과 관계가 있는 거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축제감독에게 적절한 임기를 보장하여 장기로 축제를 준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봅니다. ♣



ㄷㄷ

올해 수원연극축제는 커다란 숲에서 열립니다. 이와 비슷한 축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또 숲의 분위기나 생김새가 다르겠지요. 따라서 수원연극축제는 근본적으로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열리되 숲을 배경으로 소극적 의미의 '특정공간연극'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여타 축제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ㄷㄷ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축제,

그게 수원연극축제의
시작이 아닐까요?

시민프린지추진위원회는 바로 수원 시민들입니다

시민프린지추진위원회는 기존 수원극단연합회를 모태로 만든 단체입니다. 수원극단연합회 자체가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시민프린지추진위원회 또한 수원에 거주하는, 수원에서 활동하는 수원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대한 애착도 깊고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프린지추진위원회와 수원문화재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연극축제라는 큰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는 시민프린지페스티벌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프린지페스티벌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민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만들고자 다양한 방면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민프린지페스티벌 자체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수원의 트렌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프린지 역사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시민프린지페스티벌이 수원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같은 예술가들과 문화재단이 함께 호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수원연극축제는 시민들로부터 시작되는 문화예술 구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

시민프린지추진위원장 김창환 인터뷰

글 윤승기 기획홍보팀 사진 연재경 예술창작팀 정리 편집실

시민프린지가 바라보는 2018 수원연극축제는 즐거움입니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인 저희에게 수원연극축제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민간단체인 시민프린지추진위원회의 주도하에 시민프린지페스티벌이 진행되기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2018 수원연극축제는 그간의 수원연극축제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축제 장소가 화성행궁 일대에서 경기상상캠퍼스로 옮겨져서,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올해 시민프린지페스티벌에는 관내 9개 연극단체들의 공연인 '수원연극한마당'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직접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시민낭독공연'과 '시민연극아카데미'를 기획했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연극을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힐링연극체험'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연극적 기질과 감성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좋은 공연과 색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듣고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



INTERVIEW 02



즐거운 숲 속의 파티 '2018 수원연극축제'

5. 25 ~ 27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진행



'2018 수원연극축제' 국내외 작품 라인업 공개

글 이형복 예술창작팀장

올해 22회째를 맞는 '2018 수원연극축제'가 기존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 장소를 옮겨 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 농생명대)에서 선보인다. 새롭고 참신한 거리공연예술인 '2018 수원연극축제, 숲 속의 파티'를 소개한다.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울창한 숲은 물론 아름답거나 무가 빼곡한 자연환경을 갖춘 경기상상캠퍼스의 특성을 접목시켜 수원연극축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국내 13개 팀과 해외 6팀이 참여해 75회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자연친화적인 공연예술제의 콘셉트를 살리기 위해 '숲 속의 파티'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대형무대를 지양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연극축제는 단지 바라보는 축제가 아닌 관객참여형 축제다. 축제 기간 전에 시민들과 연극전문단원들이 워크숍 진행 후, 특별하고 감성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는 참여형 연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연극가면을 만들고 일정한 동선을 산책하며 배우들이 녹음한 오디오와 오브제를 감상하는 오디오극 등 참신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색다른 축제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시민프린지 페스티벌'을 대폭 확대해 지역 연극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연극인과 시민이 축제의 일원으로 주체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 장이 되도록 하고 수원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청춘극장 등 9개 팀의 공연과 시민낭독공연, 시민배우 10여 명이 참여하는 시민연극아카데미를 수원연극축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준비된 가면을 쓰고 상황

을 연기하는 연극치유프로그램 '힐링연극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2018 수원연극축제, 숲 속의 파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swcf.or.kr/st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 수원연극축제 해외작 리스트

공연명	극단명	국가
인간모빌 Mobile Homme	트랑스 익스프레스 Transe Express	프랑스
해체 D-Construction	딕틱 Cie DYP TIK	프랑스
여행 Le Voyage	콘타미난도 소리사스 Cia Contaminando Sonrisas	스페인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를 통하여 C'est pas là c'est par là	갈매 Galmae	프랑스
버드맨 Birdmen	클로즈 액트 Close-Act Theatre	네덜란드
남과 여 ExAequo	서커스 카토엔 Circus Katoen	벨기에

2018 수원연극축제 국내작 리스트

공연명	극단명	공연명	극단명
외봉인생	서커스창작집단	신체조각	한해민
마사지사	비주얼씨어터 꽃	거울아 거울아	금설복합예술소
바람노리	창작그룹 노니	날갯짓	퍼포머 준
불의노래	예술불꽃 화랑	줄로 하는 공연 '점'	일장일뎌컴퍼니
단디 우화	극단 몸결	모치모치나무꾼꾸는 유랑	
당골포차	연희집단 The광대		

'2018 수원연극축제'는 자연친화적인 '숲 속의 파티'라는 공연예술제의 콘셉트로, 경기상상캠퍼스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에는 국내외 극단을 비롯해 전체 32개 팀이 참여해 인간모빌, 마임, 거리극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축제는 '관객 참여형' 축제로 시민이 직접 배우가 되기도 하며, 숲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수원시민을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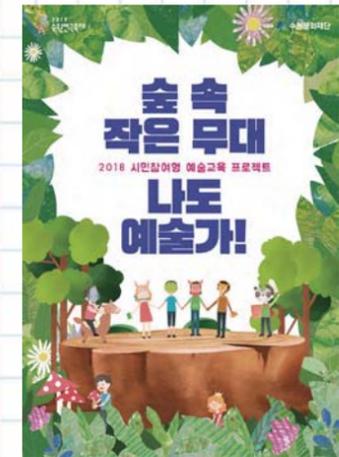
시민참여형 예술교육 프로젝트 숲 속 작은 무대, 나도 예술가!

글 신일지 예술교육팀

수원연극축제가 올해부터 경기상상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개최된다. 문화예술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2018 수원연극축제'가 열린다. 아름다운 축제의 장에 걸맞게 "숲 속의 파티"라는 부제로 추진되는 이번 연극축제는 자연과 어우러진 실내공연장과 12개의 야외무대에서 3일간 크고 작은 75개의 공연이 올려진다.

특히 이번 연극축제에서는 예년과 달리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시민낭독공연, 시민연극아카데미 등 시민프린지 프로그램과 오늘 소개할 시민참여형 예술교육 프로젝트다. 올해 축제에서 "숲 속 작은 무대, 나도 예술가!"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시민참여형 예술교육 프로젝트는 연인,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짧은 시간에 다양한 예술 장르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가족이나 친구 등 2~6명이 한 팀이 되어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과 연극 분야의 전문 강사들의 지도를 통해 관람객들을 일일 예술가로 무대에 올린다.

첫 40분은 미술 강사와 함께 동물 가면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 참여자들이 관심 있는 이야기를 선택해 동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동물)을 가면 틀과 폼 클레이로 꾸며본다. 마지막 20분은 연극 강사와 함께한다. 사전에 선택한 이솝이야기의 대본을 강사의 지도 아래 연습해보고, 직접 만든 동물 가면과 함께 무대에 올라 오늘의 주인공이 된다. 공연 모습은 수원연극축제 로고를 형상화 한 대형 토피어리에 부착되고, 연극축제 참여 인증샷으로 마무리된다.



참여자 모집은 5월 초부터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www.swcf.or.kr)를 통해 진행된다. 25일(금)은 오후 1시 20분부터 매 10분 단위로 총 20회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26일(토)과 27일(일)은 오전 10시부터 10분 단위로 각각 40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마지막 참여 프로그램은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하여 5시 30분에 마무리된다. 체험료는 2인 기준 5천원이며, 가면 1개마다 2천원이 추가된다. 🏠

체험내용

- 가면(탈) 만들기 40분 체험, 미술강사
- 기본 시나리오 제공 및 연습 10분 체험, 연극강사
- 역할극 진행 및 사진촬영 10분 체험, 연극강사

운영일정

- 5.25(금) 13:20~17:30 20회 운영
- 5.26(토) 10:00~17:30 40회 운영
- 5.27(일) 10:00~17:30 40회 운영



따뜻한 게감정과
장산적으로 영양을 채우고

오이갑장과로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봄의 만찬

봄이 되면 따뜻한 햇살이 나들이를 떠나도록 유혹한다. 지역마다 펼쳐지는 꽃 축제와 다양한 먹거리 축제들까지... 그러나 요즘은 봄의 불청객 황사 때문에 봄을 반길 수만은 없게 되었다. 겨울철보다 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이런 환절기에 몸을 보호하며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든든한 한 끼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먼지에 칼칼해진 목을 달콤한 국물로 달래주고 영양만점의 장산적과 비타민 C가 풍부한 피로 회복에 좋은 오이갑장과로 행복한 밥상을 차려보자.

저문 임종연 궁중음식 이수자 사진 김오늘 정리 편집실

임종연
임종연 궁중음식 이수자는
전통식생활체험관
궁중음식 전임강사이며
EBS 최고의 요리 비결 출연 등
다양하게 활동 중이다.



담백한 게살이 녹아든 얼큰한 국물, 게감정

'게감정'이란 게의 등딱지를 떼어 그 안에 소를 넣고 고추장과 된장을 풀어 걸쭉하게 끓인 궁중음식을 말한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중음식의 하나였던 게감정은 담백한 게살과 얼큰한 국물 맛이 특징인데 특히 정조의 수라상에 자주 올랐다고 한다. 정조의 생모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기록한 원행음요정의외래에 등장하는 355가지 연회음식에도 게감정이 들어 있다. 갑각류에 속하는 게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도 게감정에 꽃게를 많이 사용한다. 꽃게는 4월부터 6월 사이가 영양가가 제일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 맛이 독특한 글리신, 베타인 타우린 등의 성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는 단백질, 저지방의 식품이며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발육기에 있는 어린이에게는 훌륭한 식품이다. 단점은 선도가 빨리 떨어지며 세균의 번식이 상당히 빨라 살아 있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게감정은 속 재료를 곱게 다져서 만든 음식이므로 매우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 좋아 사대부가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음식으로도 많이 차려냈다. 조리 시간이 길어 자주 해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제철을 맞은 꽃게와 얼큰한 국물이 봄철 입맛을 돋워 준다.

전통레시피에서 소개하는 모든 레시피는 전통문화관에서 진행되는 음식수업에서 만날 수 있다. 수원전통문화관에서는 궁중음식, 발효음식 등 다양한 전통 음식 교육 및 체험이 가능하다. 수시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www.swcf.or.kr)를 참고하자. 문의 031-247-5612

풍미가 좋은 장산적과 식감이 좋은 오이갑장과

'장산적'은 반상에 적당하고 도시락 반찬에도 좋으며,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이다. 곱게 다진 소고기와 으갠 두부를 양념하여 반대기를 만들어 구워 네모나게 자른 것이 섭산적, 잘 구운 섭산적을 열은 간장, 물에 살짝 조리낸 것을 장산적이라 한다. 특히 섭산적을 석쇠에 구울 때는 석쇠 사이로 고기가 빠지지 않도록 은박지 또는 물에 적신한지에 까는데, 간 채로 너무 오래 구우면 나중에 떼어지지 않으니 주의한다. 그리고 장산적으로 조리 때는 양념장은 고기가 잠길 정도로 붓고 너무 바짝 조리지 말아야 한다. 상에 차려 낼 때에는 짠 반찬이니 작은 그릇에 조금만 담아 그 위에 잣가루를 뿌려 내면 보다 그 맛이 고소해진다. '오이갑장'과 '오이숙장'이라고도 한다. 갑장과는 급히 익혀서 만드는 것으로, 간장이나 된장 또는 고추장에 넣어 만드는 장아찌와 달리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삭하게 씹는 맛이 있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재료는 오이·쇠고기·표고버섯·소금·깨소금·참기름·실고추 등이 필요하다. 🏠

게감정

재료

꽃게 2마리, 물 6컵, 생강 ½쪽, 청주 1큰술, 고추장 4큰술, 된장 1큰술, 다진쇠고기 100g, 두부 ½모, 숙주 50g, 마른표고버섯 4장, 무3cm길이 1토막 / 소양념·소금 ½작은술, 다진파 2작은술, 다진마늘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후추가루 약간, (덧가루 적량), (계란 1개), (대파 ½대), (다진마늘 1작은술)

만드는 법

- 1 게를 솔로 깨끗이 문질러 씻는다.
- 2 게딱지를 떼 후 살을 손으로 눌러서 빼낸 다음 모아둔다.
- 3 다리는 짧게 끊는다.
- 4 냄비에 살을 발라낸 자투리와 다리, 생강편, 청주, 물을 푹 끓여 체에 거른다.
- 5 표고버섯은 부드럽게 불린 뒤 기둥 떼고 곱게 다져놓고 쇠고기도 곱게 다지고 두부는 물기 빼서 으개놓고 숙주는 데쳐서 송송 썬다.
- 6 ⑤에 분량의 양념을 주물러 소를 준비한다.
- 7 게딱지 안쪽에 물기를 닦고 기름을 살짝 퍼 발라 밀가루를 덧칠한 뒤 양념한 소를 채워 넣는다.
- 8 게딱지 위에 밀가루, 계란을 묻혀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지지듯이 지지낸다.
- 9 무를 나박나박 썰고 대파는 어슷어슷 썰고 마늘은 곱게 다진다.
- 10 냄비에 게국물을 붓고 고추장과 된장을 고루 풀어 끓이다가 무를 넣고 익힌다.
- 11 무가 맑게 익으면 지지낸 게와 다진마늘을 넣어 끓이다가 파채를 넣는다.

장산적

재료

쇠고기(우둔살) 300g, 두부 50g, 잣가루 2작은술 / 고기양념·간장 3큰술, 설탕, 1큰술, 다진파 1큰술, 다진마늘 ½큰술, 깨소금 ½큰술, 참기름 ½큰술, 후추가루 약간 / 장물·물(장국) 4큰술, 간장 4큰술, 설탕 3큰술, 생강즙 1큰술

만드는 법

- 1 쇠고기는 연하고 기름기가 없는 살코기 부위로 곱게 다진다.
- 2 두부는 행주로 물기를 뺀 다음 칼을 눕혀서 곱게 으갠다.
- 3 곱게 다진 쇠고기와 두부를 합하여 양념을 한데 넣어 고루 버무린다.
- 4 양념한 고기는 손으로 잘 문친 후 그릇에 탁탁 쳐서 반죽에 끈기가 생기도록 한 후, 손으로 눌러 공기를 빼서 굽는 동안 부서지지 않도록 한다.
- 5 반죽을 돌로 나누어 은박지에 식용유를 바르고 두께 1cm 정도의 네모진 반대기로 모양내어 윗면을 칼등으로 자른 다음 두들긴다.
- 6 오븐을 180℃로 예열한 후 30~40분 굽는다. 또는 팬에 지져내도 좋다.
- 7 익으면 꺼내어 식힌 다음 그릇에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썰면 섭산적이다.
- 8 간장, 물, 설탕, 생강즙을 섞어 끓이다가 섭산적을 넣고 서서히 조리면 장산적이 된다.
- 9 그릇에 담고 잣가루를 뿌려 마무리한다.

오이갑장과

재료

오이 1개, 소금물(소금2작은술 물½컵), 쇠고기(우둔살) 30g, 마른표고버섯 1장, 실고추 약간, 참기름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 고기양념·간장 1작은술, 설탕 ½작은술, 다진파 ½작은술, 다진마늘 ¼작은술, 깨소금 ½작은술, 참기름 ½작은술, 후추가루 약간

만드는 법

- 1 오이를 4cm 길이로 토막 내어 길이대로 6~8등분하고, 씨 부분을 도려내고 막대모양으로 썰어서 소금물에 20~30분 정도 절인다.
- 2 쇠고기는 곱게 다지고, 표고버섯은 불려서 꼭지를 떼고 곱게 채 썬다.
- 3 고기양념으로 다진 쇠고기와 표고버섯을 각각 고루 무친다.
- 4 오이가 절여졌으면 물에 행군 다음 꼭 짜서 물기를 뺀다.
- 5 팬이나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먼저 양념한 쇠고기와 표고버섯을 넣어 볶다가 익으면 한쪽으로 모아 놓는다. 다시 식용유를 더 두르고 오이를 넣어 센 불에 볶아서 섞는다.
- 6 오이가 익으면 참기름, 깨소금, 실고추를 넣어 잠시 더 볶아 넣은 그릇에 퍼서 식힌 다음 그릇에 담는다.



신념을 사는 사람들,

‘미닝아웃 족族’의 패션 아이템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던 자기만의 취향과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커밍아웃’하는 ‘미닝아웃 족族’이 늘고 있다. 미닝아웃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지만, 그 중에서도 패션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패션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미닝아웃을 엿볼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을 알아보자.

글 권유진

#02

에코백

동물들의 가죽으로 만든 명품 백 대신 에코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조피혁과 화학처리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천연 면이나 캔버스 천 등 생분해성 재료로 제작되는 에코백은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미닝아웃 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에코백은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나는 비닐백이 아닙니다(I'm not a plastic bag)’라는 문구를 천 가방에 새겨 넣으며 시작됐고, 이를 패션니스타들이 애용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도 급속도로 달궈졌다. 국내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은 이 같은 에코백의 취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기업이다. 터치포굿은 ‘더 나은 쓰임을 위한 똑똑한 리사이클링’이라는 의미를 담은 ‘업사이클링(Upcycling)’을 모토로 현수막에서 지하철 광고판까지 우리 생활에서 버려지고 있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에코백을 만든다. 터치포굿의 에코백은 100% 국내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제품의 질도 높고, 제작 특성상 모두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다. 터치포굿은 이외에도 손목 받침대, 냄비받침뿐만 아니라 이면지 포스트잇에서 교육 교구까지 다방면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03

기부팔찌

화려한 액세서리 대신 의미가 담긴 기부팔찌만으로도 자신의 신념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기부팔찌는 각각 다른 목적과 취지를 갖고 있고,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REMEMBER 20140416’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세월호 기억 팔찌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후원금을 모아 만들어졌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도보행진 때에도 착용된 이 팔찌는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신념을 보여준다. 세월호 기억 팔찌는 크라우드 펀딩 시작 후 7시간 만에 1만 개가 배포되었고, 수익금은 4.16 가족협의회에 전달되었다. 아이스버킷 기념 팔찌 WITH ICE는 승일희망재단에서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 기금을 위해 마련한 기부 팔찌이다. 심볼 ‘WITH ICE’는 아이스버킷을 뒤집어쓴 사람의 모습을 상징화하여 어깨동무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한다. 팔찌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 기금으로 기부된다. 남미 원주민 여성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소셜 벤처, ‘크래프트링크’는 지난해 국내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코리아 컬렉션’ 팔찌를 발표했다. 해당 팔찌는 모두 혼자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취업이 어려운 미혼모들이 집에서 재료를 지급받아 만들어졌다. 육아와 병행하며 일을 할 수 있게 된 미혼모들은 팔찌를 제작하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

#01

슬로건 티셔츠

타이포그래피로 티셔츠에 새겨진 문구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말보다 함축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슬로건 티셔츠는 베트남 전쟁 당시 전쟁에 반대하는 ‘Make love Not War’, ‘Peace’ 등과 같은 문구를 티셔츠에 새기며 시작되었다. 미닝아웃 현상에 따라 일반 패션 브랜드에서도 슬로건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패션 브랜드 디올(Dior)이 발표한 ‘We Should All Be Feminists’(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돼야 한다) 티셔츠는 국내 여자 연예인들이 입으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캠페인 티셔츠 디자인으로 유명한 영국 디자이너, 캐서린 햄넛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되자 ‘Cancel Brexit(브렉시트 취소)’라는 슬로건으로 티셔츠를 디자인 해 화제를 모았다. 국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마리몬드’에서 디자인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꽃 압화 작품이 새겨진 티셔츠는 출시되자마자 품절 사태를 빚었고, 티셔츠에 몰린 관심이 고스란히 할머니들에게로 옮겨 가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마리몬드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기금마련을 위한 소셜 펀딩 리워드 ‘Thanks for your meaningful action’(당신의 의미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이라는 슬로건 티셔츠를 제작해 후원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패션 브랜드 제인송 역시 아동폭력 반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Please stop’(멈춰 주세요) 슬로건 티셔츠를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아동 구호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했다.



“가성비에 가심비를 더하면 마음이 위로되나요?”

만족감이라는 이름의 허상,
플라시보 소비

매년 연말이면 다음 한 해의 소비 트렌드를 예측한다. 올해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자신에게 선물하는 보상적 소비인 ‘자존감’,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처럼 가격보다 심리적 만족이 중요한 ‘플라시보 소비’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동네 슈퍼마저 관련 상품을 내놓는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 소비를 한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행복하지 않다. 소비가 부족한 것인가?

글 정호훈 일러스트 청운

‘가성비’에 이어 ‘가심비’에 빠진 소비자

과거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는’ 검소함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올라가 중산층이 확대되며, 무조건 싼 것을 구매하던 ‘알뜰소비’는 중간치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는 ‘골디락스(Goldilocks) 소비’로 바뀌게 된다. ‘먹고 살만해진’ 중산층이, 품질이 의심스러운 저가와 부담스러운 고가를 피해 평균적인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사회는 개인의 ‘정체성’을 사회적 ‘개성’으로 치환하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소비를 통해서 개성을 표현할 것을 강요한다. 이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중산층의 욕망은 점점 커진다. 하여 그동안의 ‘중간소비’는 감성적 만족을 주는 대중적 명품을 구매하는 상향구매(trading up)와 실속을 위해 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하향구매(trading down)로 분리된다. 이후, 저성장 시대에는 ‘가격 대비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합리적 성향을 보이는데, 이렇게 ‘저가와 양질이 공존’하는 것을 ‘가치소비’라 한다. 가치소비는 남을 의식하는 ‘과시소비’와는 달리 실용과 자기만족이 중요하고, 저렴하지만 자신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저성장을 지나 역성장의 시대에는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cost-effectiveness, 性价比)’가 좋은 것이 장땡이다. 하지만 소비사회에 ‘조련’된 우리는 제품에서 ‘기능’만을 원하지 않는다. 소비사회가 가르쳐 준 대로 소비를 통해 마음의 만족을 얻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에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의미하는 ‘가심비(價心比)’를 더해, 마음을 위로하는 ‘플라시보 소비’가 탄생하였다. 아이폰 출시에 밤샘 줄을 선다든지, 카카오 캐릭터상품을 수집하고, 고가 생리대를 구매하는 것처럼, 애정, 위로, 안전 등 ‘기능’이 아닌 ‘마음’이 소비에 반영되고 있다.

가치소비는 남을 의식하는 ‘과시소비’와는 달리 실용과 자기만족이 중요하고, 저렴하지만 자신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저성장을 지나 역성장의 시대에는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가 좋은 것이 장땡이다.’

소비를 조정 당하다

사실 가성비나 가심비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경제학에 의하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자원은 유한하므로 ‘희소성’으로 인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에 수반되는 다양한 ‘비용’과 경제적 이익이나 만족감과 같은 ‘편익’을 잘 고민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려 한다. 즉, 우리는 비용 대비 가장 큰 만족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족이 크다고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진 않는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비용이 적어 보이고, 과소평가 된 비용은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크게 만드는데, 여기에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취향이 다르므로 ‘기회비용’은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생산자나 유통에 이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다. 개인마다 다른 기회비용과 만족감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로 이어지고, 각각의 입맛을 맞추려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기회비용과 만



“최저가 보상제”라는 한마디면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한 무더기 사면서 ‘오늘 돈 벌었다’라는 이상한 셈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떤가? 지금도 ‘지름신이 내렸다’는 변명을 하며 생각지도 않은 것을 사고 있지 않은가?



정호훈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광고홍보학을 전공해 한국영상대 겸임교수로 미디어 분야, 여론 분석 및 PR컨설팅 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경영과 브랜드마케팅을 비롯해 문화와 심리학 칼럼니스트로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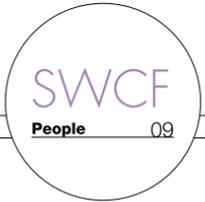
족감을 느껴야 하는지, 심지어 언제 무엇을 사야 하는지까지 가르친다. 그런데 경기는 어렵고, 소비자는 똑똑해졌다. 자기 마음대로 소비를 결정하므로, 갈수록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도 큰 문제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주고 ‘자신을 위해 소비하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또 소비는 일어나니까. 무책임한 것 같으니, 제각기 살아갈 바를 도모하라는 정도의 회피성 언급만 해주면 된다. 2017년 트렌드라고 하였던 ‘YOLO (You Only Live Once)’와 ‘각자도생(各自道生)’ 이야기다.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착각

“내가 바보냐? 저런 것에 속게?”라며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혹은 “음모론이냐?”며 부정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원리만 알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심리학의 태도와 행동 개념에서 시작한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좋다, 싫다, 마음에 든다 등 평가를 한다. 이것을 ‘태도’라 한다. 태도는 신념이나 감정에 큰 영향을 받으며 행동을 유발한다. 태도와 행동은 비교적 일관성을 띠는데, 이 일관성은 ‘상황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인간은 태도와 행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깨지면 불편한 감정, 즉 ‘인지부조화’를 느끼게 되며, 균형을 되찾기 위해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기도 한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여 자기합리화나 변명거리를 소비자에게 주면,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장 보드리야르의 ‘기호가치’와 같은 것이 흔히 사용된다. 제품은 ‘쓸모’인 사용가치와 ‘교환 관계인 교환가치’를 가지는데, 여기에 상징과 연상을 담으면 사람들의 구매 기준은 달라진다. 세탁기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과 함께, 행복, 위세 등의 요소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이 후자야말로 소비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다양한 기술이 들어간다. 가령, 명절 후 소비 진작을 위해 ‘시월드’ 프레임을 주고, 명절 기간 힘들었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소비를 해라고 하면 된다. 남이 하나까 나도 한다는 집단심리와 모방심리를 이용하면, ‘제2의 교복-노스’ 유행도 만들 수 있다. ‘최저가 보상제’라는 한마디면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한 무더기 사면서 ‘오늘 돈 벌었다’라는 이상한 셈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떤가? 지금도 ‘지름신이 내렸다’는 변명으로 지갑을 열고 있지 않은가?

잘 쓰면 약, 과하면 독이 되는 플라시보 소비

2차대전 중 모르핀 부족으로 모르핀을 가장한 식염수를 썼는데, 이에 대해서도 통증 완화를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플라시보 효과’라 하게 된다. 이후 실험을 통해 가짜 치료제가 진통 및 신경 안정 효과는 있지만, 염증성 질환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나를 거라는 마음’이 뇌의 중전두회(中前頭回)를 반응시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듯 플라시보 효과처럼 플라시보 소비를 통해 우리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헛헛한 세상에 ‘짠내’ 풀풀 나는 소비만 하지 말고, 가짜 약인 줄 알면서도 통증이 줄어드는 것처럼 소비를 통해 ‘가짜’ 만족감과 행복을 잠시라도 느끼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떠들 것이다. 하지만, 플라시보 소비가 ‘심리적 위안’ 혹은 ‘자기만족’을 위함인지, 아니면 ‘현실도피인지 헛갈리면 안 된다. 염증이 나서 항생제가 필요한데, 단순한 통증으로 착각하고 마음만 고쳐먹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소비사회에선 정신 차리고 돈을 써야 한다. 아니면, 착각을 소비한 대가로 소비할수록 만족감 대신 불행감과 공허함만 갖게 될지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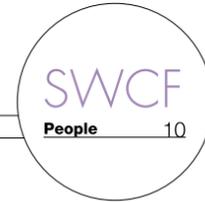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 집중하며
제 택시에서 관람하는
시민 분들에게 즐거운
해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한준 자전거택시 운전자

제가 현재 자전거택시를 운영한 게 이제 2년쯤 됐으니 말하자면 초창기 멤버죠. 저는 수원에서 자전거택시를 운전하면서 시민들에게 중간 중간 해설을 해야 할 포인트에서 설명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택시를 타는 시민들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대략 알 수 있거든요. 그에 맞춰 시민들에게 재밌는 해설을 해드리고 사진 찍을 시간도 드리고,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한분 한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보람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택시를 운행하면서 항상 화성어차와 차별화를 두려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야 시민들이 '똑같은 것을 두 번 체험한 느낌이 아니라 다른 것 두 개를 경험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화성어차는 정해진 노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한정적이지만 내가 왕이 되었다는 그런 체험을 제공한다면, 반면에 자전거택시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지만 그 틀에서 어느 정도 유동적이라 시민들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수원시의 중요한 역사를 재밌게 설명해주는 그런 운전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경현 화성어차 운전자

“항상 친절하게
안내하고 도와드리며
승객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관람하시는 동안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하시도록
운행하겠습니다.”

화성어차 운전과 안전원 역할을 현재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차 운전은 말 그대로 화성어차를 운행하는 일이고 안전원은 승객들의 승하차를 돕고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의 휠체어나 유모차를 접어서 앞쪽에 실어주는 역할입니다. 안전원은 운전자가 승객들을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기며 승객들과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또한 승객들 표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어차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기도 하는 승무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어차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어서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수원화성을 한번에 돌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따르죠. 언젠가 80대 할머니와 아드님께서 탑승을 하셨는데 할머니께서 승하차할 때 힘들어 하셔서 도와드리고 평소처럼 친절하게 대했는데 할머니께서 덕분에 너무 즐겁게 타고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이 화성어차를 즐겁게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앞으로도 이 마음가짐으로 운행하겠습니다.

1

‘행궁동 왕의 골목여행’, 해설과 체험을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품은 행궁동은 백성과 더불어 살고자 했던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마음이 담긴 마을이다. 이처럼 행궁동에는 수원의 역사와 문화유적이 마을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봄나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엔 왕이 사랑한 마을의 골목을 걸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행궁동 왕의 골목여행’은 행궁동 등 화성행궁 인근의 골목 구석구석에 숨겨진 역사 및 이야기를 골목해설사와 함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코스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코스 당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다. 생태교통마을, 한국 유화를 정착시킨 최초의 여성서양화가 나혜석 골목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촬영지, 공방거리와 행리단길 등 오랜 전통과 더불어 세련된 현재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풍광을 발견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는 기존 코스 외에 공예 또는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추가되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체험프로그램은 약 30분 ~ 60분 정도 소요되며, 해설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경험해 볼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이 포함된 코스를 선택한다면 총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소요된다.

2

어린이도서관, 독서문화운동 <북스타트> 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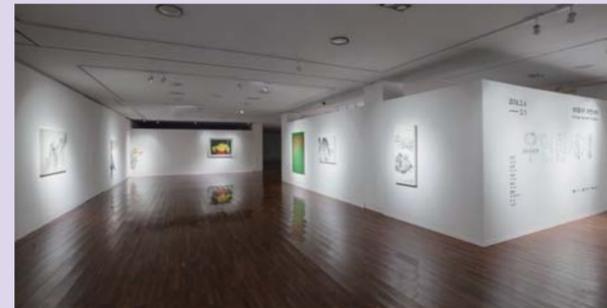
수원문화재단 어린이도서관(슬기샘, 지혜샘, 바른샘)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Book start)는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으로, 영·유아의 독서습관 증진 및 지역사회 문화복지를 키우는 사업이다. 어린이도서관은 이런 취지를 살려 책꾸러미 배부와 후속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책꾸러미 배부는 관내에 거주하는 18개월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소진시 까지 이루어진다. 책꾸러미에는 그림책 2권과 안내책자가 포함된다. 수령을 원하는 양육자는 영아 이름으로 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후, 보호자 신분증과 등본을 지참해 1층 안내데스크로 방문하면 된다. 매주 화요일에는 지혜샘·바른샘어린이도서관에서, 매주 금요일에는 슬기샘어린이도서관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후속 프로그램은 꾸러미를 수령한 영아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우리 아기 어떤 사람으로 키울까,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그림책 고르기 등 부모교육과 자원활동가들이 준비한 책과 즐겁게 노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

특별기획전 <브리콜라주 : 우연한 세계> 개최



수원미술전시관에서 2018년도 첫 번째 특별기획전 <브리콜라주 : 우연한 세계>이 2월 6일(화)부터 3월 1일(목)까지 수원미술전시관에서 개최됐다. <브리콜라주 : 우연한 세계>는 과거 부족사회에서 문화담당자를 가리키는 ‘손 재주꾼(브리콜라주(Bricolage))’을 현대의 예술가로 재해석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6명(부지현, 안민욱, 유화수, 정문경, 정승)의 작가들에게 주목했다. 그리고 한정된 재료와 도구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그들의 작품 속에서 ‘손 재주꾼(브리콜라주(Bricolage))의 면모를 찾고자 했다. ‘브리콜라주’들에 의해 다른 의미와 주제를 획득한 작품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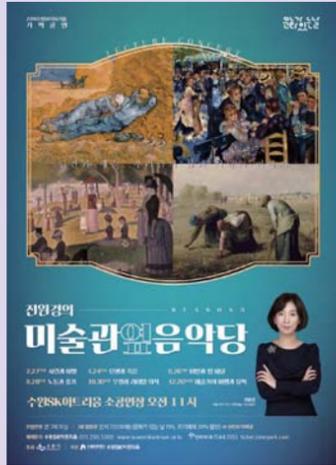
4

2018년 수원문화재단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재단은 1월 19일 오후 2시 재단 영상실에서 ‘2018 수원문화예술 공모지원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2018년 수원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자율적이며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 6개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사업은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학습개발연구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다.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사업은 예술가와 주민이 결합한 지역커뮤니티 예술프로젝트이며, ‘형형색색 문화예술’ 사업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자율적인 예술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으로 기획공모와 일반공모로 나누어 진행한다.

스테디셀러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시즌3 진행



재단은 올해 2월 27일부터 12월까지 연간 6회에 걸쳐 고품격 강연콘서트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시즌3>를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후 세 번째 시즌을 맞은 본 프로그램은 주부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매회 전석매진을 기록하는 등 수원SK아트리움의 대표적인 평일 낮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문화가 있는 날'로 관객들을 맞는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시즌3>에서는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 즉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다. '인간과 예술, 우리들의 삶과 사랑의 이야기'를 메인 테마로 예술가들의 명작과 음악작품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예술전문자가 전원경의 해설로 들려다 볼 예정이며, 매 회차별로 다양한 구성의 소규모 실내악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메인 강연자 전원경은 <영국: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예술: 역사를 만든다>, <런던 미술관 산책>, <목요일의 그림> 등의 책을 썼다. 현재 서울 예술의전당, 천안 예술의전당, 대전 예술의전당 등에서 활발하게 강의하고 있으며, KBS 1라디오 '문화공감'의 고정 게스트로도 출연하고 있다.

<SAC on Screen>, <아트리움 시네마> 상영



재단은 새봄을 맞이해 2월, 3월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영상상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수원SK아트리움을 통해 2017년부터 우수한 예술상영 콘텐츠 무료관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SAC on Screen>과 <아트리움 시네마>를 선보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수원SK아트리움 관계자는 "대중적인 콘텐츠인 영화와 영상상영을 통해 공연장의 문턱을 낮춰 수원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연장을 방문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좋은 공연콘텐츠를 통해 폭넓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영상상영 작품을 통해 꾸준히 수원시민과 만날 계획임을 알렸다.

수원화성 자전거택시와 봄맞이 벚꽃투어



수원문화재단은 4월 봄맞이 벚꽃시즌을 맞아 4월 2일(월) ~ 4월15일(일)까지 2주 동안 수원화성 자전거택시와 함께 팔달산 벚꽃 명소를 운행하는 코스를 운행했다. 화성행궁에서 시작하여 화서문, 서북각루 등 화성의 멋진 풍경과 함께 팔달산 일대 성신사, 남포루 등 벚꽃의 주요 지점까지 연인과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긴 특별한 수원화성 이야기 여행이 되었다. 수원화성 자전거택시는 3월 17일(토)부터 시작했으며, 운전자가 직접 수원화성 및 주요 골목길에 대해 해설을 하는 수원의 대표 관광 체험상품이다. 1대당 가격은 14,000원으로 화성행궁(평일/휴일), 화홍문과 연무대(휴일)에서 구매 가능하며 벚꽃투어는 화성행궁 어차매표소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화예술 기부 아름답고 가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의 손으로 수원문화예술의 싹을 틔워주세요



싹ssac 이란

Suwon Sightseeing-Art-Culture를 의미하며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관광의 '싹ssac'을 틔우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싹ssac티움 회원이 되시면

주제	구분	후원액	특별예우	기본예우
개인	씨앗 회원(연간회원)	월 3,000원 이상 년 30,000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회 *문화꾸러미 발송 • 인인화락 광고 게재 • 기획공연 티켓 제공 • 기부자 네이밍 지정 • 기업 임직원을 위한 문화행사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카드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월간 뉴스레터 발송 • 인인화락 명단 게재 • 인인화락 발송
	물 회원(연간회원)	월 10,000원 이상 년 100,000원 이상		
기업	햇살회원	1,000,000원 이상		

*문화꾸러미란? 재단에서 기획하는 공연, 제작하는 기념품 등이 들어 있는 선물상자입니다.



기부, 이렇게 참여합니다

ARS기부 060-700-1199(통화당 2,000원)

온라인기부 홈페이지 하단 싹ssac 배너 클릭

현금기부 기업은행 168-020092-01-446 (재)수원문화재단



문의 및 신청하기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재)수원문화재단

전화 031-290-3516

홈페이지 give.swcf.or.kr

수원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싹티움 회원

(2018. 4. 17. 기준)

문의 및 신청하기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재)수원문화재단
전화 031-290-3516
홈페이지 give.swcf.or.kr

싹SSAC 티움 회원이 되어주세요

싹SSAC에 정기기부를 해주실 싹SSAC 티움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두가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을 꿈꾸며,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회원명단

<p>햇살회원</p>	(주)KT&G(경기본부)	황연주	김종수	최용진	김영훈	한아름	<p>씨앗 회원</p>	이진석	김현주	하진주	이규영	조성면	차광수
	(주)신한은행	김승국	최창혁	김서연	전호정	김호기		한수민	박병규	고서진	김다롱	박정봉	이효진
<p>물 회원</p>		배영애	김남훈	김정희	김유리	권수정		최진봉	정다미	신혜숙	최영욱	박완열	
		신희선	임금자	강남철	양지석	채희락		한예지	이진희	엄주용	최화섭	박상미	

#suwonstagram

수원에서 찾은 아름다움의 잔상

@zam0130

#수원행궁 #두발자전거성공 #진작에 #가르칠걸 #자전거사줄까말까고민중 #아들사줘야지 #말잘들여라 드디어 두발 자전거 성공한 아들 진작에 가르쳐야 하는데 이제서야 가르쳐서 미안하네 아들 자전거 사줘야 하나

@fromseojinhee

#경기도청 #벚꽃 #수원벚꽃 #수원화성 #퇴근하자마자 : 봄엔 항상 요기

@bora419

#원데이클래스 #플라워수업 #일년열두달 올만에 송이랑 원데이클래스 플라워수업 음... 보는거랑 하는 건 넘나 다른것..ㅋ

@onjung

#예쁘다 #노을 #해질녘 #꽃놀이 #수원벚꽃 #고색뉴지엄 #오늘 #일상 #수원황구지천 #감성사진 #좋아요반사 #인친환영 #벚꽃 #봄 #자연 #산책 #행복 #daily #cherryblossom #sensitivity #beautiful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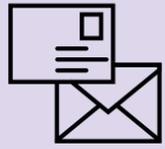
@22222.ni

#일상 #카페 #수원카페 #카페라따오 #꽃 친절한 미녀 사장님이 계신 편안한 곳으로 ㅋㅋㅋㅋㅋㅋㅋ 편하고 좋아서 (둘 다 젤 편한 의자 골라서 앉아있었음) 집에 가기 싫어가지구 멍기적 멍기적 한참 앉아 있다가 왔네

@sy_ys_sj

#주말스타그램 #육아스타그램 #수원박물관 #등이스타그램 #쌍둥이 #딸둥이 #황소둥이

Speak with SWCF



<지난 호 '인인화락'을 읽고>

01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딸과 아들이 있는 수원에서 2014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수원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너무나 많은 도시이고, 특히 부산보다 젊은이들이 많아서 활기 차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호에는 <시장 소개>가 가장 좋았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모여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 이었고, 특색을 잘 소개해줘서 좋았습니다. 현재 아내와 문화공연, 박물관 강좌, 도서관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원시 발전에 더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노정태(수원시 영통구)



02

수원역 관광안내소에 <인인화락>을 만났어요. 수원이 예전보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들어오는 전철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관광객의 유입과 함께 국민 문화 수준이 점점 향상되고 있고 여행지도 늘고 있으니, 수원이 문화관광 활성화에 더 집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인인화락>에서 설경 명소가 좋았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수원을 많이 알려주세요. 더 깨끗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수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시 찾고 싶은 수원, 머물고 싶은 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미선(수원시 장안구)



<인인화락에 참여해 주세요>

<지난 호 '인인화락'을 읽고>를 참고해서 엽서에 사연을 보내 주시면 채택된 내용을 실어 드립니다. 독자 엽서 의견이 채택된 분께는 정성껏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구독 안내

정기간행물 '인인화락'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수원SK아트리움, 수원화성홍보관, 수원전통문화관, 슬기샘·지혜샘·바른샘어린이도서관 등 수원문화재단 운영 시설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독 신청은 받지 않으며, 수원문화재단 후원회원 가입 시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wcf.or.kr
문의 031-290-3515

수원시의 파티

거리극 · 서커스 · 공중퍼포먼스

2018.5 25일 - 27일 경기상상캠퍼스

주최

수원시
SUWON CITY

주관

수원문화재단
Suwon Cultural Found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